



지극히 평범한 선택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인터뷰집

지극히
평범한
선택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인터뷰집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기록집을 펴내며...

2020년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집 직원 7명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나눔의집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공익제보를 통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나눔의집 문제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눔의집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고,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고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운영진은 나눔의집의 문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익제보한 직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명백한 보복조치였습니다.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실을 인정해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나눔의집 측은 오히려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나눔의집 측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익제보에 참여한 직원들은 2년이 넘도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더라면 진작 나눔의집을 그만뒀을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할머니들, 그리고 함께 공익제보의 길을 선택한 동료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알려지기만 한다면 나눔의집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눔의집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눔의집을 관리·감독



해야 할 경기도와 광주시는 이 문제를 방관하다시피 했습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목적으로 선임되었던 임시이사 중 5명이 “조계종이 정상화를 가로막았다”며 2022년 3월 이사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와중에 공익제보자들은 법인과 운영진이 남발한 고소·고발을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지쳐가는 과정 속에서도 나눔의집 법인을 향한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해온 단체들의 연대체인 나눔의집공익제보자 서포터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소·고발 대응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법률기금 모금을 기획했습니다. 2022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모금을 진행하였고, 약 1100만 원 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모금해주신 기금에서 기록집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공익제보자들의 재판 및 법률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쓰일 예정입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기록집은 법률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특별한 사건과 마주한 이들이 공익제보자라는 낯선 이름을 받아들여지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복잡다단한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어디쯤 자리하게 되는 걸까요? 두려움과 무력감을 딛고 꺼낸 일곱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가 나눔의집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깊이, 사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기금 모금과 기록집 제작 과정이 공익제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법률기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례

- 06 공익제보자도 평범한 사람입니다_허정아
- 20 한 인간으로서의 할머니 삶을 보세요_김대월
- 36 잘 되어야 한다는 믿음_전순남
- 44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_이우경
- 52 군대보다 더한 감옥 같은_조성현
- 61 나눔의 집이 아닌 싸움의 집_야지마 츠카사
- 79 나눔의 집 7명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_류광옥
- 91 나눔의집, 시설화된 삶을 말하다_아정

- 104 ‘나눔의집’ 구성도
- 106 나눔의집 공익제보 관련사건 연혁
- 110 용어설명
- 112 기록집 제작에 함께한 단체 및 사람들
- 113 후원자 명단

구술기록

공익제보자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 구술 허정아
- 기록 아사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제 성향 자체가, 뭐랄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남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요. TV가 없으니까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빨리빨리 알지 못했죠. 신문을 보기는 했지만 신문에 실린 소식은 하루 늦잖아요. 제가 가진 기질 자체에다가 상황적 조건까지 합쳐져서 그런 성향이 더 강화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하느라, 대학생 때는 노느라 TV 볼 시간이 없었어요. 졸업 후 취업했을 때도 워낙 일이 많아서 집에 있을 시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굳이 집에 TV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TV를 두지 않기로 합의했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한 템포 늦게 알고 늦게 반응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게 제 성격에 맞았어요.

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몸으로 뛰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제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제 성향으로 봤을 때 몸으로 봉사를 하거나 시민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웠고, 기부가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 참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연 혹은 악연의 시작

그러다 나눔의집을 알게 되었죠. 나눔의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17년 5월말 부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일을 원지 한참 된 상태였거든요.

이전에는 전공을 살려서 설계 사무실을 다녔는데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의 한계 같은 걸 느꼈달까?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남의 회사는 안 다녀야겠다 싶어서 한동안 과외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귀농에 대한 로망이 생겨서 귀농해서 3년 정도 살았죠. 그런데 살아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도시로 돌아왔어요. 그 때가 2017년이었어요. 제 나이 쉰 언저리였죠.

한참 자유롭게 살다보니 다시 한 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생활에도 흥미가 생기고, 사회복지사인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사회복지사에 도전해 보면 어떻겠냐고 권하더라고요.

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후에 실습처를 찾다가 나눔의집에서 실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거기서 실습을 하게 되었어요. 실습이 끝나고 사무국장이 여기서 일 해보지 않겠냐고 권하더라고요. 실습경험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했던 점이, 입사를 했을 때 제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눔의집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되고, 나눔의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상황을 보고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면접을 볼 때 운영진이 내건 조건이 딱 두 가지였어요. 급여랑 주말 근무. 급여는 연봉 한 2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만 하고, 급여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나눔의집에 일하겠다고 했을 때 돈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좋았고 나눔의집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크게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거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설명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나눔의집이 법인, 역사관, 할머니들이 지내시는 시설로 구성되어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어디 소속으로 일하는지도 몰랐어요. 나눔의집과 관련된 이런저런 사실들을 알게 된 건 일을 시작한 지 3,4개월 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일하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나눔의집에 전화하신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눔의집과 조계종이 무슨 관계냐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고 난 이후에야 나눔의집 공식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눔의집 업무가 얼마나 비체계적이고 영성하게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죠.

알고 보니 나는 위생사

나눔의집에서는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내고 처리해야 했어요. 일 시작한지 2개월 정도 됐던 때로 기억해요. 어디에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내용을 봤는데 제 직책이 위생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당시 저는 제가 위생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위생원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알아봤더니 청소, 빨래 등을 하는 사람이 위생원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나눔의집에 그런 업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에게 내가 왜 위생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눔의집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 광주시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직책이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제가 실제로 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상급자가 그렇게 말하니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죠.



8



9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저 이전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던 분이 퇴사를 하면서 사무국장이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제가 요양보호사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위생원으로 등록하면 어떻겠냐고. 대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자격증 따는 거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그렇게 말하니깐 그러겠다고 하고 자격증을 땀어요. 그리고 제가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요양보호사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주로 한 일은 나눔의집 법인업무와 역사관 관련 업무였어요. 직원이라고 해봤자 두세 명이었는데 대부분 법인 일과 역사관 일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한 달 방문객만 한 800명, 900명 정도 됐어요. 행사도 많았고, 할머니들 모시고 외부 방문도 해야 하고, 외국에서 온 기자들도 상대해야 하고. 이런저런 해야 할 일이 많았죠. 방문객 중에는 역사관에 온 시민도 많았지만 국회의원처럼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하면 할머니들과 사진을 꼭 찍으려고 하니깐 챙겨야 할 일이 더 많았죠.

할머니들 유품 정리하는 일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데, 할머니들 유품을 제대로 정리도 하지 않은 채 한 십 몇 년을 묵혀 놔더라구요. 유품에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의 유품을 마스크도 안 끼고 정리했어요. 2017년에 건립된 제2역사관 전시실 꾸미는 일도 했어요. 해야 할 일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하는 엉성한 체계였던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좋은 곳이라고 믿었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라도 20년 동안 이 곳에 있었던 사무국장이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고 기관에 입사했는데 나도 모르게 위생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후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된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과 역사관 일을 한 애매한 상황. 운영진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저는 요양보호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한 업무를 제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함께 공익제보를 한 동료들이 없었다면, 그래서 공익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제 성향을 봤을 때 2019년쯤에 일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처음 일 년은 멋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2018년 말쯤 되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이상하고 부당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구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나눔의집에서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나눔의집에 온 방문객 앞에서 과거에 당신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 사람들과 사진 찍고 이런 거 이외에는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나눔의집 직

원인데 할머니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침, 점심으로 할머니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인사드리고 잠깐이나마 같이 놀아 드리고 혹시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여쭙보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죠. 2018년까지는 그렇게 인사만 드릴 뿐 할머니들에 대한 활동을 기획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뭔가를 제안하면 운영진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예전에 노인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가 본적이 있어요. 가보니 나눔의집과 완전 비교가 되더라구요. 뭐랄까,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 재가복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 계신 노인들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눔의집은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나눔의집은 할머니께 방과 식사 정도만 제공한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일종의 시설인거죠. 나눔의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곳을 보면 할머니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들어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지 않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할머니들의 자식 입장에서든 여기에 모시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무료 양로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숙박해서 사시는구나, 뭔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눔의집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운영 방식이 너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출근을 해서 시설장과 2층에 계신 부원장 스님께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면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인사를 안 한 직원이 있으면 회의 시간에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예의가 없다면. 그러다보니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발장에 부원장 스님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있으면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없으면 안 하고.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의사 결정도 완전 일방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보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거기다가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죠. 20년 가까이 나눔의집에서 근무하신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급여에 승급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일련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분노 게이지가 조금씩 올라간 거죠. 2018년 말 정도부터 업무가 끝나면 직원들끼리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나눔의집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또는 착각

그러다가 시설장이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조리사에게 막말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2019년 3월 쯤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직원들이 더 이상 논의만 할 수는 없다고 깨달은 것 같아요. 더는 가만히 있

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 요구사안을 정리했어요. 당시에 저희가 시설장에게 요구한 것은 세 가지였어요. 우선 직원에게 육한 것에 대해서 사과 하고 나눔의집 운영 방식을 좀 더 민주적으로 바꿀 것, 할머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그리고 간호조무사 선생님께 승급을 적용할 것.

처음에는 형식적이긴 했지만 사과도 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처럼 하더니 시간만 질질 끌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해 7월에 직원들이 함께 대표이사에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고 싶었어요. 순진하게도 그 때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구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나눔의집의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알게 된 거예요. 기존에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자료를 찾아보면서 실제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 문제를 외부에 밝히는 것에 반대했어요. 저희의 문제제기가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눔의집이 나아지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무섭기도 했어요. 문제가 너무 커지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원했던 건 할머니들이 나눔의집에서 좀 더 나은 돌봄을 받고, 좀 더 행복하게 여생을 사는 것 그리고 나눔의집이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거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 해결하려는 것도 잘 안 되고, 직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눔의집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공익제보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어요. 순진한 거였는지 명칭한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만 하면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일이잖아요. 국민들이 이 일을 알면 당연히 분노할 것이고, 변화를 위한 여론을 만들어 질 거라고 본 거예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할머니들 일이라면 당장 나설 거라고 믿었어요.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는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공익제보 후 괴롭힘이 시작되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공익제보 후에 저희를 지원해주는 류광옥 변호사님이 국민권위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셨어요. 공익제보 후에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이런저런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소·고발도 시작됐거든요. 당시에 저는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기도 했지만 왜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눔의집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저를 비롯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괴롭힘 등의 문제도 같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 대한 법인의 공격이나 괴롭힘에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눔의집을 제대로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보호조치 신청마저 안 해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더라고요. 공익제보 후에 많은 분들이 우리 공익제보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시만 해도 나눔의

집 정상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눔의집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거기에 남아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공익제보한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문제가 더 부각된 거죠. 운영진의 다양하고 집요한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태어나서 처음 고소장이라는 것을 받아보고, 경찰서와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하다 보니 공익제보자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공익제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공익제보 후에 저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과 자리가 있었어요. 그 때 그분들이 저희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할 거라고. 고소·고발도 당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봤을 때 업무 처리 등 어떤 면에서도 크게 잘못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고발당할 일도 없어 보였죠. 공익제보를 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공익제보가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잃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잃는 거라고 해봤자 직장 정도? 하지만 이런 문제투성이 직장을 잃는다고 해서 제 인생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거죠. 경험이 없었으니까.

너무 지겨웠어요

운영진이 고소·고발 덕분에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봤어요. 신호 위반 이런 걸로 과태료 내본 적은 있지만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황당하고, 경찰이 물어보는 내용도 너무 황당하고. 분명히 시설장이 사인을 한 문서인데 제가 시설장의 사인을 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게 있으면 걱정이 됐을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황당했어요. 그 때만해도 공익제보자로서 겪어야 하는 일종의 통과의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는 정말 잘못된 일이 없는데 운영진은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 잡아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사람을 진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압박이 크잖아요.

제가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제가 입사 후에 역사관 일을 했잖아요. 알아보니 석사 졸업증을 가진 사람이 자격이 되는 역사관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 학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고 통과가 되어서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학예사 자격증이 사무실로 온 걸 보고 운영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는 요양보호사인데 허위 사실로 학예사 자격증을 받았다고 신고를 한 거죠.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문회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약속된 날에 청문회에 갔어요. 마치 제가 의도를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추궁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그래도 나눔의집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 너무 난감하고 어려웠어요.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거죠. 그 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 일 이후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하지만, 저는 매사 올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나길 올바르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지적 받기 싫어서 올바르게 살려고 매사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보니 평소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웬만하면 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눔의집에 와서 내가 올바르게 못한 사람이 되고, 부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취급을 당하니깐 그게 미칠 정도로 힘들더라구요.

그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몇 번이고 반복됐어요. 시설장은 제가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요양보호사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필요한 곳이라면 글로든 말로든 제가 제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어요. 2020년에는 나눔의집 공익제보를 위한 일을 했는데 2021년은 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변명을 반복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 뭐랄까... 저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에 대한 무기로 쓰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등록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역사관 일을 시킬 때는 언제고 내가 그 경력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 같으니깐 그런 일 시킨 적 없다고 부정한 거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이제는 그런 글 쓰는 것도 지겨워요. 초반에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니깐 잘 해명해야지, 설명해서 상황을 잘 해결해야지 싶었는데 지금은 글 쓰려고 하면 그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가슴이 방망이질 하듯 막 뛰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위생원도, 요양보호사도 아니었으면서 왜 계약서에 그렇다고 서명을 했냐고 말해요. 하지만 사무국장이 나눔의집에서는 관행이라고, 원래 그렇게 해왔다고 말하는데 거기 대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거기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않아요. 그리고 그 일 하나만 가지고 이 곳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게다가 계약서를 쓸 때만해도 이후에 제가 공익제보를 하게 될 줄 몰랐으니 그냥 사무국장이 하자는 대로 한 거죠. 지금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그 사실이 제 발목을 잡는 무기로 쓰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겪고 있는 상황도 결국엔 나눔의집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저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공익제보는 처음이라

공익제보를 두 번 이상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살면서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공익제보를 다시 한다면 (물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전의 경험

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좀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떠나서 공익제보를 하는 내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금방 쉽게 될 줄 알고 한 건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 공익제보를 한 동료들이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구요. 이런 걸 사람들이 안다면 쉽게 공익제보를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공익제보에는 일종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공익제보로 터뜨려서 한번에 확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만약 공익제보자가 그 조직에 남아 있으면 자신이 고발한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조직의 윗선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괴롭힘을 지시한다면 다른 구성원들도 그 권위에 복종해서 괴롭힘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공익제보자가 그 조직을 나와 버리면 그 문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보니 공익제보자의 입장에서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공익제보라는 게 제보한 사람을 담보로 잡아서 그들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 일이 불법 주차된 차를 신고한 거랑 크게 다른가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불법 주차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주고, 그 사람에 대해 지적질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는데 공익제보를 한 사람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부분의 공익제보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처럼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건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 기간 중에 용기를 내서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욕을 먹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까지 받았는데도 법인 측의 고소·고발 폭풍을 맞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익제보를 하려고 하겠어요? 공익제보자가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리가 보여도 그냥 눈 한 번 감고 말지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뭔가를 바꾸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구요.

이런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웬만하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하고,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공익제보를 하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는 그냥 문제를 제기한 할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성가족부나 경기도, 광주시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곳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데 다른 문제들은 얼마나 더할까 싶어요. 사회 곳곳의 잘 드러나지 않은 부정의를 이야기한 사람들, 뭔가를 바꿔내고 싶어서 용기를 낸 사람들이 그런 태도 앞에서 좌절하고, 멈추고, 쓰러졌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에게 공익제보를 다시 할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공익제보를 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들을 제대

로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에게 남발되는 고소·고발은 막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이 어마어마한 변호사들 고용해서 고소·고발을 퍼붓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한 명이 아니라 일곱 명이었던 점이에요.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혼자라면 결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류광옥 변호사님 덕이 정말 컸어요. 계속 이어지는 고소·고발에 대해 방어를 정말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소·고발을 당했던 것 자체가 그리 무섭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모든 공익제보자가 이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막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고소·고발은 공익제보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쫘팍 묶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공익제보자라는 이미지

공익제보 후에 생각을 많이 했던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익제보자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와 제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이었어요. 이번에 법률기금을 모금한다고 했을 때도 생각했던 건데, 사람들이 모금 캠페인을 접할 때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일종의 '좋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잖아요.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거라는 '좋은 색안경'을 들이대면서 보는데, 그들이 보는 내 모습이 과연 내 본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이 저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월 선생이나 마리오 선생 같은 경우는 역사의식도 있고, 어떤 소명감도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나눔의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이상하고 부당해서 공익제보를 한 것이지 거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일을 알리기만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나한테 어떤 손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힘들고, 지치는 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저는 그냥 평범하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공익제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공익제보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어요.

공익제보 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바깥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도 있었어요. 스스로를 봤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계속해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의 의도를 찾아내려고 해요.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운영진으로부터 몇 번을 당하고 나니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요.

그러다보니 성격이 많이 나빠졌어요. 이전의 제 삶은, 뭐랄까... 풍파를 심하게 겪은 삶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탄한 삶이었죠. 앞에 진흙탕이 있는 게 보이면 살짝 돌아가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여기에서 못 볼꼴을 너무 많이 보고, 인간이 얼마만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계속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도 많아졌어요. 원래 그렇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었던데요. 근데 별 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많이 봐요. 해외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잠시 한국에 들어온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최대한 표를 안 내려고 했는데 미안할 정도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2월에 휴가를 내고 좀 쉬었어요. 스스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실에서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우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막 화가 나서 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런 상태로 사무실을 다니면 사무실 분위기도 더 안 좋아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남편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깐 검사검사 좀 쉬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쉬었는데도 그런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쉬는 중간에 임시 이사 중 한 분이 연락을 하셨길래 자꾸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의 말이 꼭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랬더니 병원에 꼭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소개시켜주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 상황과 상태를 쪽 이야기했더니 왜 이제야 왔냐고 하셨어요. 처방해주신 약을 먹고 일을 쉬니까 상태가 조금 호전되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공익제보자인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미지에 제 스스로 얽매어 있는 것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몸과 마음이 힘든 것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공익제보자인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공익제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공익제보자도 결국엔 사람이잖아요. 절대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공익제보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것이 공익제보자에게 너무 큰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익제보를 하기로 결심하면서 직원들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공익제보 때문에 할머니들이 힘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이 할머니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단 1년, 2년이라도 늘려야 하는데 그것조차 놓친 것 같아요. 공익제보 후에 운영진이 갖은 이유를 대면서 공익제보자들과 할머니들을 못 만나게 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도 할머니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2019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자랑이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모시고 나가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할머니 모시고 거의 매일 나갔어요. 하루에 두 번 나가기도 했어요. 매일 머릿속에서 어디를 모시고 가면 재밌을까, 어디를 가야 할머

니가 좋아하실까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힘이 안 든 건 아니었지만 막상 나갔을 때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정말 보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 모시고 나가려고 하고,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민해서 실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할머니들이 계신 시설이라는 곳의 한계를 벗어나는 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한 곳에 같이 모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바깥 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어려워진 거죠.

지금 나눔의집에 계신 할머니 중에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하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나눔의집에서 매일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과거 자신이 당했던 이야기, 그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이기도 했구요. 물론 과거에 당신이 어떻게 끌려갔고,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리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그 할머니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단순히 과거의 경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조금만 도움을 드리면 정말로 굉장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분이었던데요. 그런데 매년 비슷한 과거 얘기만 하다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최근에 잡지사에서 그 할머니를 인터뷰하려고 왔어요. 지금 할머니의 삶이 어떤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아무 말씀도 못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러시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제가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면서 할머니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여쭙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이나 그러시더니 결국에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지난 20여 년 동안 당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물어보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을 과거에만 갇혀 살도록 만든 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곳에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신 거죠. 당신들은 그게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이고,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하시게 해서 안 되었는데,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만 규정하고, 다른 것들을 살피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할머니들의 행복 이런 것들이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어떤’ 결말에 대한 두려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상황이 나눔의집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 더 나아가서는 우리사회 시스템의 한계, 사람들의 관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이라고 하면 엄청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뭐가 문제인지 진지하고 진득하게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저한테 남아있는 선택지는 얼마 없어 보여요. 아무 생각 없이 악으로 깡으로 여기서 버티는 거. 근데 그것도 끝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악으로 버티겠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완전히 소진될텐데. 공익제보자는 자신을 완전히 태우면서까지 자신이 제보한 일에 매달리는 게 당연한 걸까요? 상황이 바뀌지도, 바뀔 거라는 희망도 없는데 그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있죠.

다른 선택지는 머리끈 질끈 매고 분기탱천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나눔의집을 나와서라도 그 곳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투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하나, 그런다고 뭐가 바뀔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은 그렇게까지 끝까지 밀고 갈만한 지구력이나 용기, 힘이 없다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체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상황에 끌려가다가 지쳐서 모든 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으로선 최대한 빨리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 자신을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인간으로서의 할머니 삶을 보세요

- 구술 김대월
- 기록 박희정

어렸을 때부터 일본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싫었어요. 역사 공부도 일본이 싫어서 시작했어요. 역사 왜곡에 대해 반박하고 싸우려면 역사를 알아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더러 우스갯소리로 버튼 누르면 역사적 사실이 튀어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공부에 몰두했어요. 대학은 역사와 먼 전공을 택했지만 결국 대학원에 진학해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역사 연구자로서 다시 본 ‘역사’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인데,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석사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글을 읽는 법, 글을 쓰는 법, 논지를 파악하는 법, 내 논지를 주장하는 법을 그때 다 배웠어요. (나중에 공익제보 활동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죠)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들을 거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났어요. 일본도 그렇게 싫어지지만은 않더라고요.

입사 3일째에 알게 된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던 편이었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관련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라든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뭐가 다른지 등을 교수님이 설명해주셨죠. 마침 박사 논문 주제를 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학교가 독립운동 쪽 연구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서 쓴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밖에 모르잖아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빛을 못 본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니 내가 밝혀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 독립운동 중 어느 것으로 박사 논문을 써야 되나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우연히 나눔의집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주말에 일하고 주중에 이틀 쉬어야 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마침 제 박사과정 수업 일정과 겹치지 않게 딱 맞았어요. 입사지원서를 넣었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을 접고 친한 사람들과 낚시를 하러 갔어요. 2018년 현충일이었어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잉어를 잡으면 한 마리당 8만 원씩 주기로 내기했죠. 자연산 잉어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날따라 제가 잉어를 네 마리나 낚았어요. 잡은 잉어들을 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나눔의집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일이 잘 풀린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눔의집 급여가 정말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출퇴근하기도 어려운 데 있었어요. 그래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을 연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 옆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 역사가로서는 굉장한 행운이죠. 아무리 책상 위에서 공부해 봐야 현장에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7월에 출근하니 사무실에 스님 한 분이 앉아계셨어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그런가보다 싶었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운전을 하래요. 할머니 한 분이 광명시장을 만나러 가셔야 한다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간호사님이 다급하게 내려오셨어요.

‘할머니 지금 광명시장 만나러 못 간다. 병원 가야 된다.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신다.’

간호사님의 말에 시설장이란 사람이 화를 팍 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시장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가. 참으라고 해.”

순간 머릿속에 불이 딱 들어왔어요. 이걸 뭐지? 제가 들은 말이지만 믿기지 않아서 실수했거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설장이 멈추지 않고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라도 준비시켜!”

아니, 할머니가 물건이야? 준비시키라니?

게다가 준비시키라고 한 그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거동이 어려우세요. 입사 3일 차에 불과한 저도 아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직원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시설장이 또 화를 냈어요.

“시장 만나기로 약속해 났는데 할머니가 안 가면 어떡해!”

결국 할머니 없이 가긴 했지만 시설장의 태도에 크게 충격받았죠. 그날 배가 아프시다고 한 할머니는 대장에 천공이 생긴 거였어요.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광명시장을 만나러 가셨으면 돌아가셨겠죠. 이렇게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 이상한 곳이구나. 그때부터 나눔의집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박물관이 세상에 어디 있나

입사해서 반년 정도는 나눔의집 역사관을 재정비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기부해서 역사관을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나눔의집은 그걸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 도구로만 여겼어요. 운영 철학도 없고 시스템이랄 것도 없더라고요. 관람객들이 오면 사회복지무원이나 직원 중 마침 자리에 있는 아무나 가서 해설을 해요. 들어봤는데 틀린 부분이 많았어요. 관람객들이 질문을 던지면 답할 수 있는

직원도 없었어요. 나눔의 집에 계셨던 할머니 명단도 제대로 없었고 증언 채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할머니도 계셨어요. 명색이 역사관인데 전시물도 별것 없었어요. 심각했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정비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역사 전공자고 학원 강사 경험도 있으니 남에게 설명하는 건 자신 있었어요. 관람객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어요. 증언집이 없는 할머니의 증언을 받아서 텍스트화해놓고, 나눔의집 영상 자료를 뒤져가면서 뭔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추려놓고.

제가 처음부터 학예사로 채용된 건 아니었어요. 나눔의집은 직원마다 업무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일 저 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식이거든요. 일단 뽑아 놓고 역사 전문가로 능력을 보이니까 역사관을 맡긴 거예요.

여기에 와서만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일제강점기 때 피해자들이 썼던 군표(軍票, 군대가 해외 주둔지나 점령지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특수화폐)를 제 돈으로 샀어요.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오래된 화폐를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윤영진에게 보여주면서 10만 원 정도 있으면 이런 물품들을 더 다양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 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시 물품을 채워갔어요.

영국인 어니스트 베텔이 대한제국의 민족주의 인사들과 1904년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항일 논조의 신문이라 일본제국이 설치한 통감부에게는 눈엣가시였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에 '대한'이라는 글자를 떼어버리고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만들어버려요. 《매일신보》에 위안부 모집 광고가 실려있거든요. 《매일신보》는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어서 옛날 느낌 그대로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눔의집 역사관에서 그걸 그냥 일반 복사용지에 프린트해서 놔둔 거예요. 심지어 그 신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야말로 경악했어요. 이런 박물관이 세상에 어디 있나.

《매일신보》에 실린 위안부 모집 광고의 광고주는 허씨,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예요. 이것 때문에 일베나 일본 측에서 조선 사람이 조선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한 거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총독부 기관지에다 광고를 실을 수 있을 정도면 친일파 거든요. 위안부 모집이라는 말이 한자로 쓰여 있는데 당시 여성의 학교 진학률이 12% 정도예요. 그러니 이 광고는 모집 대상자들이 보라고 낸 게 아니예요. 모집책들, 그러니까 처녀들을 취업 사기로 끌고 오는 중간 업자들 보라고 낸 메시지인 거죠. 이런 설명을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인쇄하고 코팅해서 세워놨어요. 지우개를 잘라서 받침대를 만들어 붙였죠. 박물관에서 얼마나 돈을 안 쓰면 그랬겠어요.

할머니의 내일

입사해서 1년쯤 지났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사업을 공모한다고 저더러 사업기획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부탁하길래 할 수 없이 썼는데, 제 기획이 선정됐어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시가 있다고 하면 다 가봤어요. 이미 끝나서 가보지 못한 전시는 도록을 찾아봤어요. 전시의 흐

름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끌려갔고 어떻게 피해당했고 그러니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건 당시 자료들을 보여주다가 1991년 이후에는 운동사 쪽으로 전시물을 보여주거든요. 그냥 나열해놓아요. 새로운 메시지가 없어요. 그건 의미 있는 전시가 아니거든요.

역사 연구에서는 지금 나한테 없는 무언가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철학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가 엮이고 커져서 내 미래가 되는 것인지 지금 나한테 있지도 않은 게 갑자기 내 미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 역사 철학에 할머니들을 대입해 봤어요. 할머니들의 오늘이 어떠한지 보면 할머니들의 내일이 나올 것 같아서. 할머니들의 현재는 어떠한지? 생각을 복잡하게 하다가 '할머니'가 아닌 '할머니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우리 사회가 할머니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불쌍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심지어는 '위안부 할머니'라고 많이 부르죠. 우리 사회가 이들을 필요로 할 때는 반일 감정 들끓을 때. 일본이 망언하면 기자들이 나눔의집에 찾아와요. 할머니 심정이 어떠냐고 물어요. 그걸 물어야 아냐요?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 사회가 이들을 피해자로만 대상화했구나. 그렇다면 할머니의 내일은 피해자로 대상화되다가 돌아가시는 게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고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의 내일>이라고 전시 이름을 붙이고, 나눔의집에 있는 사진과 영상 자료를 다 뒤져서 할머니들의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골라냈어요. 예를 들면 화투 치고 있는 모습, 얼굴에 껍 하고 있는 모습, 김치 담그고 있는 모습, 놀이기구 타는 모습. 그냥 우리네 할머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죠. 할머니는 평범하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오롯한 '한 사람'으로 봐달라. 그래야 위안부 피해자의 내일, 위안부 문제의 내일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하면 이 문제가 끝난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주장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여성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상상해볼 수는 있잖아요. 제가 위안부 피해를 당했다면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해도 용서 못할 것 같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가 수십만 명 일 텐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내일> 전(展)은 2019년 7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국내 여러 도시를 순회하고 독일에도 다녀왔어요. 전시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요. 할머니들은 전시를 보러 오실 상황은 아니었고 유일하게 이옥선 할머니가 와서 보셨어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지만, 평소와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다른 전시에 가면 자기가 피해당했던 사진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사진들 앞에서는 할머니들이 피해자로서만 말해요. 그런데 이 전시는 그런 사진을 최소화했어요. 할머니들끼리 즐겁게 어울리고 계신 사진들 앞에서 이옥선 할머니가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거, 이 사진은 내가 어디서 찍은 거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 저 사람은 어땠지,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 시기에 제가 참 힘들었거든요. 순회 전시라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 운전을 혼자 다 했어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었어요. 전시가 한창일 때 나눔의집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내부적으로 이미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밤새 문서 쓰느라 바빴어요. 거기에 박사과정 수업도 들어야 했고, 결국에는 이가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이우경 선생님도 그 사업으로 채용할 수 있었고.

‘할머니의 내일’은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찾아야 하고 할머니의 삶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사과에 매달려서 할머니의 삶마저 등한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전시를 구성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공익제보로 연결됐어요. 나눔의집에서 <할머니의 내일> 전시를 어떤 업체에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이나 입찰 과정 없이 상대방을 임의로 골라 체결하는 계약)으로 다 맡겨버렸어요. 그 업체가 돈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나중에 보니까 전시물 가격을 다 뺐튀기해놨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익제보의 시작

나눔의집 운영진들은 직원을 굉장히 하대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대해서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나눔의집에서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운영진들이 저를 조금씩 어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저를 달리 보게 됐죠.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믿어주는 것 같다 싶었을 때 직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슬쩍 이야기했어요. 2019년 봄이었어요.

후원금 받는 업무는 우리가 한다. 후원금 할머니한테 잘 쓰겠다고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한다. 근데 그 후원금이 할머니한테 쓰인 적이 있나?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도 공범 아니냐? 누가 물으면 난 대답할 말이 없다. 나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 문제가 계속 묻히겠느냐. 언젠가 밝혀지면 나는 역사의 죄인 아니냐?

그 자리에 있던 직원 중 절반 정도는 자기가 목격한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머리에서 피가 났는데 병원도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런 증언이 막 쏟아졌어요. 몇 분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이분들을 끝까지 설득했어요. 당시 행정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들 모두 나눔의집 문제를 바로잡는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대체로 앞에 막 나서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런데 설득하는 작업이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다들 마음의 부채가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겪는 부당한 일들이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데 너무 힘들죠. 한편으로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나눔의집이라는 곳이 일하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오래 일한 분이 거의 없어요. 어딜 가도 여기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 목매는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는 외부에 제보하기보다는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칫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운동 전체를 깎아내릴 핑계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공익제보가 일본 정부에게 이용될지 모르니 어떻게든 내부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스님들을 찾아다녔는데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뭐랄까, 상식적인 수준의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조계종에서 최고로 높은 승려 집단이 나눔의 집을 장악한 상황인데, 소위 말하는 권승들이죠. 권력을 탐하는 승려들. 이들이 몽니 부리면 정치인들이 가서 108배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엎드리잖아요. 대통령 후보도 와서 조아리는데 저희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어요.

그들에게 나눔의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2020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문제를 세상에 드러냈어요.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나눔의집 운영진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들이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한 거죠. 권한이 있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부작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가진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였어요.

바로 다음 날 여가부, 광주시, 경기도에서 다 왔는데 아…… (긴 한숨) 그때 알았죠. 내가 굉장히 순진했구나.

마주친 현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가부는 자기네가 지원하는 돈 건드린 적 있느냐만 물어보고 싹 발을 빼고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경기도에서는 와서는 후원금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 월급이 적어서 그런다, 직원들 월급 올려줘라, 이만 소리나 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때 저희가 고발한 사항들을 경찰과 검찰에서도 인정했고, 대부분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공익제보를 막으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공익제보를 준비할 때 결과를 낙관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에 알리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갖는 애뜻함이 있으니 굉장히 분노할 테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분노를 잠재워야 할 테니 일을 할 것이다. 나눔의집이 행정 위반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다듬어서 외부에 알리자. 우리의 역할은 그걸로 끝이다. 판단 착오였죠.

저도 다 알면서 그때는 왜 생각을 못 했는지 몰라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데 있어요. 할머니들이 수요시위장에서 팔을 흔드는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죠. 나눔의집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도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만 집중했지 할머니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익제보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비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있기는 한데,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쉬운 구조예요. 법대로만 하면 지금 나눔의집 없어져야 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악용해서 무언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걸 제보했을 때, 힘이 있는 몇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아주 손쉽게 막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걸 많이 느꼈죠.

가령 이런 거예요. 나눔의집에서 공익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나눔의집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보면 충격적이예요. 저희가 제보한 내용은 거의 다 사실로 인정됐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는 사람들은 다시 이 문제를 일으킨 조계종 쪽의 사람들인 거예요.

공익제보 후에 나눔의집을 정상화하려고 임시 이사진이 구성됐어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눔의집 정관에는 '이사의 3분의 2를 승적이 있는 스님으로 두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 조계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임시 이사 중에 기독교 재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조계종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 임시 이사를 자르고 스님을 집어넣었어요. 그 스님이 이사회 들어와서 봉니를 부리니까 임시 이사 두 명이 사퇴했거든요. 그 자리도 다시 조계종이 채워요.

옳고 그르거나 아니라 누가 힘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인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는 공익을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힘이 있어야 되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공익제보를 한다면 힘으로 누를 생각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학대가 아니라면

나눔의집은 무료양로시설로 되어 있어요. 무료양로시설은 거동이 가능하고 수입이 없는 할머니가 오시는 곳인데, 여기는 다 수입이 있고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들이 계세요. 요양시설에 있어야 될 분들이 양로시설에 있는 거죠.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건데, 나눔의집 쪽에서는 무료양로시설로 등록하면 매달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오니까 그게 좋았고, 광주시 입장에서는 딱히 아무도 문제 안 삼고 지역 홍보가 되니까 서로 윈윈한 거죠.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할머니는 없었죠.

'사회복지'인데 복지를 하겠다면서 사람을 한곳에 모아놔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한곳에 모아두는 곳은 군대나 감옥, 뭐 이런 곳이지요. 그런 곳 빼고는 사람을 모아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를 한다면서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놓는다? 그렇다면 복지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나눔의집은 위치상 밖에 나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밖에 내보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의존적으로 변해요. 나눔의집은 그걸 아주 심분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증언하기 싫다는 할머니에게 증언 안 할 거면 나눔의집 나가라고 대놓고 얘기했었죠.

2010년에도 일본인 직원이 공익제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눔의집 운영진은 문제가 터지면 바로 할머니 찾아가서 녹음기 켜고 '할머니 나눔의집에 있는 거 좋지?'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좋다고 하죠. 일본군이 패전하면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그냥 버리고 갔잖아요. 할머니들은 종전이 된 사실도 모른 채 있던 곳에 그냥 남겨졌어요. 보통 중국에 많이 체류하셨죠. 그렇게 남겨진 여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추방령을 내려요. 추방령의 근거는 풍기문란. 기녀라는 거죠. 중국인이랑 결혼하면 거류증이 나와서 안 쫓겨나도 되거든요. 대부분 좋은 결혼을 못 해요. 자식 딸린 남자, 나이가 많은 남

자에게 시집가서 정말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려요. 지금이야 중국이 많이 발전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특히 시골 지역은 말도 못 하게 어려웠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주로 동북 지방에 계셨으니까 다 시골에 계셨단 말이죠. 그러다 나눔의집에 오니까 여름에 안 덥고 겨울에 안 춥고 내가 농사 안 지어도 되고 밥 나오고 잘 데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마냥 행복하신 거야. 그걸 이용한 거죠. 정말 나쁜 거죠. 잘 데 없는 너 내가 밥 주고 재워주잖아.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 히터 틀어주잖아. 좋잖아. 그러니까 나눔의집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우리가 좀 쓸게. 이렇게 할머니들이 계약까지 하게 했다니까요. 그 계약서도 제가 공개했죠.

여기 방문객들이 많이 오면 하루에 열 팀씩도 오거든요, 그 방문객들을 맞이해서 '저는 18살 때 위안부로 끌려갔던 누구입니다' 이 말을 하루에 열 번씩 해야 한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학대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학대인지. 할머니 얘기 듣고 학생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용돈 모아 후원하거든요. 그걸 나눔의집에서 짝 가져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게 무기력하게 다시 쫓겨.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스님, 뭐 큰 스님이라는데, 생전에 나눔의집에 오면 신도들 앞에서 할머니들을 일렬로 짝 앉히고는 봉투 하나씩을 줘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머리 조아리고 두 손은 높이 쳐들며) 이려고 받아 이려고. 그 봉투 안에 10만원 20만원 들어 있거든요. 스님 가고 나면 나눔의집에서 그 돈을 짝 걷어가요. 할머니가 돈을 받는 그림은 나오는데 할머니가 돈을 받은 적은 없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요.

할머니들한테 생활지원금 나오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 만났을 때 제발 그 돈부터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원했던 국민의 세금이 할머니의 삶을 윤택하게 했느냐? 아니거든요.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건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지만, 나눔의집 할머니들은 맨날 간혀서 어디 외출도 못 하고 있는데 매달 통장으로 330만 원씩 넣어주면 그 돈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자식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탐냈고 자식 없는 분들은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 유서 위조해서 다 가져갔어요. 그 돈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움 난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만나다

나눔의집은 인간미를 아끼려고 인력을 적게 써요. 직원들이 출근하면 서로 말할 새도 없이 일만 바쁘게 하다가 집에 가요. 밥 먹을 때 빼고는 할머니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밥 먹을 때 할머니를 만나도 다들 사무적으로 인사하게 돼요. 의미 없는 말들을 던지고 마는 거죠. 식사 많이 하셔야죠. 할머니 끌고루 드셔야지 건강해지세요.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이런 것도 시설의 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그렇게 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워낙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랬듯 할머니들 만나면 옆에 가서 장난을 많이 쳤어요. 할머니들은 그게 좋았던 거죠. 나를 시설 이용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고 대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살아계셨을 때 아무와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가슴에 깊이 담아둔 비밀이 있으신데, 할머니가 혹시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입 밖에 낼 까 봐 아예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눔의집에서는 할머니가 숨기고 싶어했던 이야기를 세상에 다 드러냈어요. 그 할머니는 늘 표정이 없어요. 웃지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옆에 가서 장난을 계속 쳤죠. 제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망설일 때였어요. 하루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이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물었죠.

“할머니, 나 결혼해야 될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다음 날 다음다음 날 계속 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여자친구가 결혼하자는데 난 결혼하기 싫어. 어떡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왜? 왜 해야 돼?” 되물으니까 그때부터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결혼은 이래서 해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고 등등.

“근데 할머니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지.”

“아니 결혼하면은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

“그래야 돈을 모으는 거야.”

그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방을 나오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내 이름 뭔지 알아요? 내일 만나서 내 이름 안 불러주면 나 빠질 거야.”

다음 날 와서 또 물었죠.

“할머니 내 이름 뭐야?”

“대월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도가니탕 한 그릇

나눔의집에서 할머니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설득을 당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할머니가 고춧가루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나눔의집에서는 안 사줘요. 시설 사람들 생각에 할머니는 고춧가루를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할머니가 요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사다 드렸어

요. 할머니가 필요하시다잖아요. 쓰고 안 쓰고는 나중 문제죠. 할머니에게 고춧가루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사다 드린 게 냉동실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안 쓰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뉘시를 되게 좋아해요. 겨울에는 뉘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뉘시용 물품들을 이것저것 사봐요. 그걸 사면서 드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 있으면 안 돼. 시설의 편의에 맞춰서 통제당하게 되거든요. 할머니들이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여가부에서 주는 돈만으로도 그렇게 안 살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번은 ‘속리산 할머니’가 동네 사람한테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으니 받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나눔의집이 아니라 속리산 쪽에 살고 계셨거든요. 내가 받아다 드릴게요 하고 봤더니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더라고요. 못 받는 거예요. 할머니 이걸 진작 이야기했어야지 왜 이제 이야기했나니까 나눔의집에다 계속 얘기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을까 머리를 굴렸어요. 위안부 피해자 돈을 빌려 가서 안 갚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사에도 제보했어요. 할머니가 충청도에 살고 있었으니까 충북 MBC가 뉴스로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찾고 아침 방송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포털 메인에도 걸리고 크게 이슈가 됐죠. 속리산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 일 있고 나서 할머니가 병원에 가실 때는 저랑 같이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할머니가 배고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식사하시고 가져다 줬죠. 맨날 시설에서 주는 밥만 드시잖아요. 도가니탕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사드렸어요. 나눔의집은 할머니한테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대놓고 말하는 곳이니까 제 돈으로 사드렸죠.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때부터 병원은 꼭 대월이랑만 간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실은 도가니탕이 목적이신 거예요. (웃음)

갈 때마다 사드렸는데, 제가 월급도 많지 않으니 좀 힘들더라고요. 한 그릇에 1만 8천 원씩 하거든요. 할머니가 혼자서는 절대 안 드세요. 같이 간 사람 다 함께 먹어야 돼요. 사회복지무원 한 명이 같이 가니까, 제가 세 그릇을 사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많으면 세 번씩도 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들어가자고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2019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나눔의집이라는 곳이 존재 이유가 뭔데 할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도 다 못 드시고 돌아가셔야 하나. 이렇게 아낀 돈은 도대체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건가. 화가 치솟았어요. 이미 공익제보를 결심한 상태였지만 너무 화가 나서 마치 증기 기관차에 석탄을 삽으로 퍼넣는 것처럼 가속했어요.

후회

요즘은 할머니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저희가 할머니 숙소에 올라가는 순간 법인 쪽 말을 듣는 간병인들이 따라붙거든요. 가령 할머니와 내일 어디 가기로 약속하면 저희 가고 난 뒤에 간병인들이 할머니를 계속 설득해요. 가지 마시라고. 저희는 퇴근하지만 간병인들은 밤새 할머니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 할머니들이 간병인 눈치를 보시게 돼요. 저희와 접촉하면 할수록 할머니가 더 힘들어지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갈 수 없죠. 속리산 할머니만 대월이 봐야 한다며 저희 사무실로 잠깐씩 찾아오세요.

제가 나눔의집 법인으로부터 고소를 11건 정도 당했어요. 법인 쪽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공익제보한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면 막 싸우고 쫓아냈죠. 그러면서 고소를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가해 본 적 없이 살아왔거든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요. 어디 가서 시비를 걸지도 않고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소장에 묘사된 저를 보면 욕하지, 뭐 뺏지, 문서 붙여놓은 거 떼어버리지, 제가 봐도 완전 성격 파탄 난 놈같이 보이더라고요.

나눔의집 역사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에요. 근데 운영진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나눔의집에서 2012년까지 확보된 물건들은 국가지정물로 등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물품들을 목록만 만들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뒀죠. 역사관 수장고에는 스님들 책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유품들을 수장고 안에 들여놨거든요. 국가지정기록물은 목록이 있으니까 이 목록과 대조해서 매뉴얼에 맞게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국가지정물에 등록하지 않은 2012년 이후의 물건들은 누구 것인지 써놓지도 않고 그냥 버려둔 채로 있어요. 저희더러 이걸 왜 정리 안 하나냐는 거예요. 정리하려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아야 하는데 인력 두 명 갖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로 공격하니까 답답하죠.

항상 초긴장 상태로 살아요. 오늘도 여기 인터뷰하러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보도자료를 하나 써야 했어요. 공익제보자 이름으로 나가는 문건은 거의 제가 쓰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20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부리나케 초안을 쓰고 차를 탔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 저건 저렇게 고쳐야 된다 계속 전화가 와요. 이렇게 2년 가까이 살아온 거예요. 이 문제가 끝나서 나도 좀 휴가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생각도 잘 안 해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출근해서 업무 보고 퇴근해서 밥해 먹고 그냥 바로 자요. 그리고 새벽에 깨서 텔레비전 보다가 다시 잠들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원 후배들은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학자로서 가야 될 길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데 저만 길이 딱 끊겼어요. 다른 연구자들은 논문 쓰면서 논리 하나에 치고받고 하는데 나는 고소장에 대한 반박문이나 쓰고 있고... 에너지를 너무 당겨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년에 나눠 써야 할 에너지를 다 모아서 1년에 다 쓴 느낌. 이 문제가 해결돼도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공익제보에 대한 후회요? 많이 했죠. 더 잘할 걸.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직원들한테도 고통이 덜 갔을 거란 후회를 하거든요. 동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공익제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후회는 안 했어요. 옳은 일이었으니까. 누가 봐도 아닌 걸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역할을 피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역할이 내게 또 안 오길

바란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제 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죠.

동료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마지막 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동하는 양심이 돼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해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었던 건만 대통령도 민주당, 광주시장도 민주당,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인 나라에서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됐었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억울해요. 이렇게 끝 일이 아닌데. 이걸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공익제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공익제보자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버텸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힘은... 7명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부당한 공격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당하다.’

동료들이 있어서 많은 힘을 얻어요. 저 혼자 목소리를 냈다면 어땠겠어요. 다른 직원들이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저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이분들이 이 운동을 배신하지 않고 같이 분노하고 진심으로 서로 걱정해주며 오늘까지 왔어요. 이분들 없었으면 저도 중간에 모든 걸 놓았을 거예요. 지켜야 할 사람이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안 했겠죠. 이렇게 안에 남아서, 그 괴롭힘을 다 견디면서 힘들게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작년에 사무실 바깥 뒤편에 박스를 하나 버려놨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거기에 새끼를 낳은 거예요. 세 마리는 죽고 두 마리는 사람도 못 올라가는 데다 빠뜨려놔서 비만 오면 막 울더라고요. 직원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구조했어요. 치료해주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어미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이번에는 여섯 마리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챙겨줬죠. 요즘 추우니까 겨울용 길고양이 집을 사다가 매일같이 핫팩 깔아주고 기침하는 애 있으면 약국 가서 약도 사다 주고, 그 새끼들을 또 빠뜨린 거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꺼내준 뒤에 어미더러 이번에는 도저히 못 키운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막 울어요. 우는 소리가 나는 데로 찾아가 보니까 그 어미의 새끼가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녀석인데, 좀 약하게 태어난 거 같았어요. 꼬리 모양도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사무실로 데리고 왔어요.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스트레스겠다 싶어서 일단 내보내 줬어요. 그런데 새끼들 데리고 오던 어미 고양이 있잖아요. 개가 그 새끼 고양이를 사무실로 몰고 들어왔어요. 자기 새끼도 아닌데 훑아주더라고요.

어느 날 어미 고양이가 어디서 목덜미를 물려서 살이 찢어져서 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수술시켰어요. 하는 김에 중성화도 같이 시켰고요.

그 뒤로 고양이들 밥을 계속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 약한 새끼 고양이만 유독 마르는 거예요. 걱정됐죠. 그러다 겨울이 됐는데, 너무 추웠나 봐요. 사람을 경계하던 애가 사무실 문을 열어달래요.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하루 이틀이면 죽을 것 같대요. 설사하는 거 보니까 무슨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고. 쫓. 그래... 네 팔자니 죽기 전에 맛있는 거나 많이 먹으라고 제일 비싼 통조림을 사 줬어요.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점점 살이 찌고 몸이 커졌어요. 호흡기도 안 좋았는데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약 먹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냈죠.

그런데 나가 놓고 오더니 이번엔 갑자기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대퇴부가 골절됐대요. 심 박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160만 원이라네요. 마침 저희가 며칠 전에 공익제보 한 걸로 상을 받아서 상금 100만 원이 생긴 참이었어요. 거기에 또 십시일반 돈을 더해서 수술시켰죠. 오늘 면회 갔다 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워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개가 저한테 의지하는 걸 보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많이 풀려요. 직원들이 그러는데, 제가 고양이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이 된대요. 조계종 쪽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면 제가 막 욕을 하면서 거칠게 화를 내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고양이만 안으면 귀여운 목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기 대하듯이 “그랬져~?” 이러면서. 고양이라는 존재가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해줬어요. 고양이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 고양이들이 내가 죽지 말라고 왔구나...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웃음)

남은 것과 남길 것

공익제보하고 상을 많이 받았어요. 세어보니 일곱 개를 받았더라고요. 2020년에 참여연대에서 주는 상을 받을 때는 ‘아 진짜 내가 무슨 일을 하긴 했나 보다, 사람들이 상도 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 준다고 하는 게 반갑지는 않네요. 일곱 번째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상은 일곱 개씩 받았는데 나눔의집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상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주는 건데 왜 내가 하는 의미 있는 일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도자료를 내도 요즘은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아요. 얼마 전 나눔의집이 치매에 걸린 위안부 피해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저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어요. 이런 기사도 써주지 않아요. 나눔의집 법원에서 저희 쪽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쓰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걸어버리거든요. 기자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저쪽엔 돈도 있고 그런 걸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깐 어느 순간에는 불교 관련 매체들만 나눔의집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인상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싸움이 공익제보자와 조계종 일부 스님 간의 싸움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민사회가 나눔의집을 빼앗아 가려고 김대월을 위장 취업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거기까지 상상력이 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너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될래, 논문 쓸 여유를 가질래? 누가 묻는다면 저는 두 번 생각 안 하고 바로 논문 쓰기를 택해요.

그렇다고 공익제보 활동으로 제가 얻는 이득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 간에 최소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자부심이 남겠죠.

제가 어릴 때부터 말싸움을 잘했어요. 말로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고서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죠. 제가 모욕죄로 계속 고소당하니깐 변호를 맡아주신 류광옥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냐. 오히려 당신한테 더 적대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에게 남는 게 무엇이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느 순간 변호사님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막 화부터 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변화도 제게 남는 거죠.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떠한 성과도 없이 우리가 물러나는 거예요. 나눔의 집이 다시 조계종 권승들한테 가더라도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시그널을 줄 최소한의 성과를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저희가 고소만 잔뜩 당하고 나가는 구도니까.

공익제보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계종은 이기기 쉽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사회는 부패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당신 좋은 제보를 했다, 이 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는 파워가 있는 곳이라 쉽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사회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를 중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과감해지겠죠. ‘나눔의집도 결국에는 법인이 다시 가져갔어. 우리의 카르텔은 공고해’라고 사회복지 법인들에게 자신감만 심어주게 되는 게 될까 봐 두려워요. 혹시라도 그 안에서 공익제보를 하려던 사람들이 ‘나눔의집도 안 됐는데 우리가 되겠어?’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약자가 횡포를 부릴 확률은 낮잖아요. 힘이 있어야 횡포를 부리는 건데. 기득권이 잘못된 일에 더 엄하게 책임을 물린다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에게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그런 횡포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일신상의 편함을 위해서 한발 물러서는 게 다른 여러 복지시설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냥 못 물러나요.

이 싸움의 끝

나눔의집에서 벌여놓은 일은 마무리 짓고 싶어요. 만약 제가 쫓겨난다면 그것도 일종의, 안 좋은 마무리지만,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눔의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끝낼 생각은 없어요. 장내에서 장외로 투쟁의 장이 바뀔 뿐.

가장 좋은 마무리는 나눔의집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잖아요. 본래 역할에서 너무나 멀어졌지만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니의 내일’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안부 피해자를 보는 대상화된 시각이 할머니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나눔의집이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곳에서 할머니들이 생활했으니까.

나눔의집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방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방도 있는 반면 미국 가서 증언하고 독일 가고 증언하고 운동가로서 활동한 사진이 빼곡한 방도 있어요. 이런 할머니도 있고 저런 할머니도 있어요. 운동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할머니든 그렇지 않은 할머니든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했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렇게 공동생활한 곳이 없잖아요. 나눔의집이 있음으로써 할머니들에게 피해만 간 건 아니었겠죠. 일정 부분 할머니한테 좋은 점도 있었겠죠. 나눔의집이라는 공간과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알리는 역할을 나눔의집에서 해나갈 수 있다면 저에게도 가장 좋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익제보가 제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



잘 되어야 한다는 믿음

- 구술 전순남
- 기록 이정하

수천 명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10년 동안 회계 일을 해왔어요. 2019년에 개인적인 관심이 생겨서 나눔의 집에 입사했어요. 억압적인 분위기였고 소속이 시설인지 법인인지도 알길 없이 시설 '나눔의 집'과 이를 운영하는 법인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의 회계를 모두 관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즐겁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공익제보 후에 법인으로부터 업무공간을 분리하라거나 회계 업무를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으면서도 회계 업무를 놓치 못한 건 잘 될 거다, 잘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돈은 숫자에 불과했어요.

2019년 3월에 입사했어요. 웃기는 게 입사를 하면은 소속이 시설인지, 법인인지 알려주질 않았어요. 회계직원이었지만 후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 걸 알고자 하면 뭘데 참견하나는 식이었어요. 언론에 터지기 전까지 후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경로가 없었어요. 전임 회계 직원도 처음에는 시설로 입사 했었대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역사관의 외국인 안내 업무도 하고요. 모두들 할머니하고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일했던 거였죠. 시설은 그걸 이용했던 거예요.

입사하고 일주일 만에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아침 9시마다 기본 1시간씩 회의를 했어요. 직원들은 할머니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정무적인 준비를 많이 해요. 외부에서 누가 오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통보였죠. 직원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개인의 의견이 있어도 묵살됐고 원장이나 사무국장의 말에 복종해야 했어요. 그저 할머니가 사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열심히 일했던 거였죠. 그 해 8월에 국장이 직원 급여를 주고 사라지고 갑자기 소장이 시설 회계 업무까지 다 하라고 했어요.

그 때 처음 후원금 규모를 알게 되면서 직원 모두 경악했어요. 후원금이 많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한 달에 2억이나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에 2억이라는 돈이 들어와도 할머니들 채우는 영망이니까 돈은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했어요. 지금은 2천명 정도 밖에 안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5천명의 후원자가 있었어요. 통장을 19개 정도 관리했죠. 정부에서 주는 시설 보조금에는 할머니 생계 유지비, 특별 위로금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걸 할머니를 위해 직접 쓰라는 예산인데 사무국장이 사라지고 시설 회계를

함께 하면서야 알게 된 거죠. 지금은 매달 후원자들이 보내는 후원금을 정리해서 금융 결제원으로 인출 요청 자료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통장이 있어도 이 돈이 쓰이지 않는 곳에 계속 묶여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요.

할머니와 데모 가던 길

처음에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영광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아침에 뵈고 인사드리고, 점심 때 식사하시면 옆에 앉아서 수다 떨고 반찬도 봐드렸어요. 할머니 앉아가신 침대 끝에 누워 잠도 잤어요. 가려고 하면 할머니가 가지 말라, 놀다가라고 하시고 화투도 치자 했어요. 김대월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밥을 했어요. 할머니가 김치 먹고 싶다하시면 심었던 배추를 뽑아다 거실에서 자르고 곱절이를 무쳐요. 그 자리에서 잔치판이 벌어졌죠. 할머니는 간 보시고 누구는 떡꼬치 끼우고 그때는 재밌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데모가자, 데모가세' 그러셨어요. 1종 스틱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던 날인데, 얼마나 무섭던지 어안이 병병했어요.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고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는데 슬슬슬 길을 뚫고 가야되잖아요. 할머니 화장실도 고려해야 되고 식사도 챙겨야 해서 복잡한 경로를 다 따져봐야 돼서 어렵고 실수할까봐 걱정했어요. 다녀와서는 녹초가 되긴 했지만 정말 좋아서 또 갔어요.

할머니들께서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하셨어요. '신발이 필요하다, 이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시설장 눈치를 보시다가 편한 직원들에게 '나 이게 먹고 싶다' 조용하게 얘기하셨어요. 제대로 갖춰진 옷도 없고 낡은 가구를 쓰셨어요. 예전에는 뷔페가게 이름이 적힌 접시에 밥이랑 반찬 놓고 식사를 하셨어요. 글씨가 다 벗겨져서 하얀 접시가 회색 접시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지저분해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벽지처럼 곰팡이 나는 게 아니니까요. 제보하고 나서 정아샘이랑 제일 먼저 그 접시를 바꿨어요. 정아샘은 저보다 마음이 더 여리고 세심하게 신경쓰는 사람이라 할머니 좋은 신발 사드리고 접시도 바꿔드리면서 신이 났죠. 동네 유명한 제과점에서 맛있는 것 사다 드리면 '뭘 이런 걸 다' 그러시고는 말씀도 없이 드세요. '할머니 외출할까요?' 하고 여쭙보면 또 말씀이 없으시다가 뒤를 돌아보세요. '가자' 이렇게 말씀은 안하셔도 외투를 꺼내시며 이렇게 말씀은 안하셔도 몸으로는 표현하시는 거죠. 늘 지옥같은 삶에 대해서만 증언해오셨잖아요. 그러니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어디 가자, 맛있는 거 드시자 하니 처음에는 혼란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할머니께서 그냥 '씻일 사러 가자, 반찬사러 시장가자' 그러셨어요. 직접 계산도 하시면서 내 돈으로 내 물건을 사는 재미도 느끼셨어요. 고추 짱아찌, 깻잎 짱아찌 종류별로 마음에 드는 것 다 사시면서 곡식 창고 쌓아두듯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내신 기간은 고작 7개월 정도 밖에 안됐어요. 새로운 원장이 오고부터 직원들과 할머니들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공익제보하고 부터는 저희들과 할머니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뵈러 2층에 올라가면 요양보호사들이 원장에게 전화를 해요. 저는 법인 직원인데 왜 할머니 옆에 있나

고 나가래요. 운영진은 공익제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비위생적으로 밥을 한다, 코로나라 위험한데 할머니 데리고 나간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안하게 되는 거죠. 할머니 뵈러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이 늘 옆에 딱 붙어 있으니 계속 관계가 소원해져요. 할머니께서도 말씀 안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보기 괴로워서 더 못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할머니를 진짜 편하게 대하고 함께 놀았는데 그런 거 하면 노인 학대라하고 또 고소가 들어가겠죠. 차라리 할머니가 화도 내시고 너네는 뭘 잘못했길래 이런 소리를 듣나 하시면 할머니 속마음도 좀 알 수 있을텐데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원래 1층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운동 끝나면 요양보호사들이 2층으로 올라가야한대요. 그러면 할머니는 당황하셔서 눈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시겠다는 듯이 저희를 쳐다보시죠. 저희가 “할머니 여기서 계실래요, 올라 가실래요?” 하고 여쭙보면 몇 초간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올라가시거든요. 할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안 올라가시면 우리가 피해본다는 것을. 그래서 체념하고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계속 감시하고 외출도 못하면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완전 수용시설이고 감금, 감옥이죠.

끝까지 놓치 않은 회계업무

여기 오기 전에 건설회사에서 9년을 일했어요. 일하는 남성들만 하루에 수천명이예요. 여직원 둘이서 회계, 관리, 공무를 다 해요. 거기는 말 그대로 지게차 들어오고 덤프트럭 나가는 공사판이죠. 종종 차장이 소장한테 소리 지르는 일도 생겨요. 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싸우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 늙은 집은 전혀 안되죠. 아침에 출근하면 소장님 자리 가서 인사하고, 국장님 자리 가서 인사해야 하는 권위적인 곳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업무나 사회복지 회계에 대해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책 있으니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틀리다고 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국장은 얼마 안 돼 사라졌으니 물어볼 길이 없었죠. 시설 회계는 전산 프로그램 관리하는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일했어요. 잠시라도 시설 회계를 맡으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랬다면 할머니에게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걸 왜 안 쓰는지 알고 싸우지 못했겠죠. 알고 났으니까 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공익제보 후 범인은 제가 사회복지쪽 경력이 없다, 회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요. 회계직원도 따로 뽑고 도장, 직인, 카드, 통장 다 내놓으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압박했어요. 범인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회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회계직원과 국장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와 눈 앞에서 공문 종이를 흔들면서 “전순남 선생님 회계업무 반납하세요, 내놓으세요” 악 쓰고 그래요.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힘들고 슬프고 너무 어려웠어요. 말이 안 되는 말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산이 안 되죠. 하지만 대답을 해야 하니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그때 직원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보호해줬어요. 그때가 제일 고맙고 좋았어요. 그때 일로 대월샘이 성추행했다고 소송당했거든요. 무혐의가 나서 다행이에요.

범인은 회계 업무를 반환하라고 하면서 따로 예산 관리 과장을 뽑았어요. 그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어요. 그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와 악 쓰면 나도 모르게 다른 선생님을 바라보게 돼요. 도와 달라고요. 그 과장은 다른 선생님이 도와주면 그냥 가곤 하더니 어느 날 그만뒀어



요. 그제야 '아, 이제는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먼저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채용된 사람이 회계 업무를 보고 있어요. 직원이 아니었을 때도 할머니들 계신 2층에서 숙식을 하기에 임시이사님이 시설에서 퇴거 조치 시켰어요. 그랬더니 요양보호사로 입사한 거예요. 운영진은 그 사람이 예산을 잘 아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래요. 그 사람을 회계 직원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을텐데 제가 버티고 있는 거죠. 반납 안하면 고소 고발한다는 내용증명이 집으로 두 번이나 날아 왔지만 제 일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말 못했지만 제일 걱정했던 것

공익제보 하는 동안은 큰 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자료 준비한다고 새벽에 출근하기도 했거든요. 둘째 아이는 엄마 늦는다고 하면 학원도 못 가고 막내 아이를 봐줬어요. 고1이었던 아이가 집으로 온 내용증명을 먼저 열어봤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야?"라고 묻는데, "필요없다, 몰라도 된다"고만 말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싸움 한번 안 해봐서 할 줄을 모르니까 심장은 두근두근 뛰어요. 하지만 애한테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이도 알긴 알 텐데 티를 안내더라고요. 가족들도 공익제보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돈 흠쳤나? 아님 됐지!" 그리고 말아요. 안 물어봐준 게 고맙고 다행이었어요. 물어보면 하나하나 말하느라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가족들에게 전가되잖아요. 내용증명서가 오고 경찰서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풀까봐 제일 걱정했어요. 안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가족들에게 짜증이 잦아졌더라고요. 그때 공익제보 그만 두고 싶다고 직원들에게 투정 부렸죠. 아가가 있으니까 공익제보 직원들과 함께할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퇴근이 없어요. 나눔의집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출근하고 집에서 퇴근하면 다시 나눔의집으로 출근하니 똑같죠. 가족들 앞에서는 힘들다고 말 안했지만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공익제보를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했어요. 낯선 법도 찾아보고 관련 사례도 많이 봐야 했어요.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했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는데 심리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왔어야 한다고요. 어려운 거 티 안내려다 보니까, 스스로도 힘들다는 생각을 잘 안했어요.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몸은 아니었던 거죠. 다른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요. 어떤 직원은 입사한 첫날 회의 때부터 운영진과 싸우는 걸 보게 됐죠. 그 때부터 다들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파요. 하나 힘든 티 안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이 길어지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술렁이는 것들이 생기죠. 공익제보를 하면서 사람을 믿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힘들 때 기자나 변호사들이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기 전까지 먼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신뢰성이 있나? 진심인가? 우리에게 뭘 원하고 우리한테 손을 내미나?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나 혼자 편하자면 못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면 머리 감는 것부터 힘들어요. 그걸 넘으면 개운하고 출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출근해도 지금은 은행 업무를 직접 보진 못하고 인터넷 banking 정도만 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졌으니 힘들죠. 대신 한 달에 몇 번씩 회계 감사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회계가 개판이다, 회계를 자꾸 틀리게 한다'고 몰아가요. 그런데도 결제받을 일이 있으면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결제를 받으러 가야 해요. 결제를 받으러 가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계속 마음을 진정 시켜요.

공익제보자들이 생각하기에 할머니들을 위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 임시이사진들은 왜 안하고 있냐고 저희가 계속 항의했죠. 오히려 왜 공익제보한 직원들이 더 감시를 더 당해야 하는지 몰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코로나에, 언론에 고발 기자회견 하려고 하면 대통령 선거에, 다른 사건에 계속 묻혀서 곤두박질이었어요. 그러곤 계속 묻히고 묻히고 묻혔어요.

오히려 법인과 싸웠던 것보다 할머니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버젓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제일 힘들었던 때는 임시이사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시작됐을 때부터였어요. 그 때쯤 다른 회사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봉도 많이 주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해준다고요. 직원들은 축하해주면서 "가야지, 이런 자리가 또 있겠냐"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서로 아쉬워 섞인 말을 좀 하기도 했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요. 여기서는 전망은 안 보이는데 같이 있어야 하고, 끝은 안보이고 진짜 어렵죠. 직원들이 일곱 명이나 되니 서로 의지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나눔의집 그만 두면 밥벌이 끊기니 이직 문제를 제일 걱정할거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돈 못 벌겠어요? 제가 여기서 나가버리면 후원금으로 법인의 별금을 내야할 수도 있고 공익제보가 한계에 묶여버리잖아요. 모두들 저에게 나가는 게 맞다고 해도 혼자 편하자고 나가면 발 뺄고 못 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나눔의 집에 있는 게 몸이 불편해도 정신은 편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되어야 한다는 믿음

처음에 2020년 7월에 민간 합동 조사할 때 상송세를 탔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해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까지 나왔어요. 할머니 요청도 무시하고 짐도 일방적으로 치우고 훼손했다는 걸 확인해 준거죠. 할머니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는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잘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컸어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가 빛을 볼 수도 있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곤두박질치다가도 조계종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갔을 때 '우리 이러다 좋아질 것 같지 않나?'고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2022년 3월에 임시이사회가 파행되는 순간은 공익제보자들도 끝났다 하는 순간이죠. 직원들도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이 일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른 직원들은 병가를 내서 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안 하면 월급을 줄 사람도 없고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도 이체해야 하니까 혼자 묵묵히 해요. 나중에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달콤한 낮잠을 자고 싶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엔 할머니들이 피해자로만 보였지만 지금은 '그냥 보통의 할머니셨구나'라는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할머니는 역사가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 오면 할머니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사 준비를 못하겠어요. 할머니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만 나서 간신히 참고만 있어요. 답도 없고 갈 길도 못 찾겠어요. '대월이는 어디 갔냐, 조서방은 어디 갔냐' 찾으시는데 자세히 말씀 못 드렸어요. 그저 걱정 없이 할머니들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면 좋겠어요. ♡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 구술 이우경
- 기록 홍세미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었어요. 제가 봉사나 동물,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어요. 2015년 대학생 때 나눔의집에 봉사를 가고 싶어서 메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에서 나눔의집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결국 가지는 못했지만요. 2017년에 부모님께서 나눔의집이 있는 퇴촌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우연한 기회로 퇴촌 지역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했는데 바로 옆이 나눔의집 부스였어요. 처음에는 나눔의 집과 정말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죠.

학예 업무에 회계 업무까지

2019년에 나눔의집 역사관 학예사로 입사했어요. 역사관은 김대월 선생님, 야지마 츠카사 선생님, 저 이렇게 셋이 근무했어요. 역사관 일은 활동적인 업무가 많았거든요. 일은 재밌었지만 정말 바빴어요. 역사관의 전시, 심포지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력이었거든요. 관람객들도 많아서 매일 역사관 해설과 다른 일도 병행하려니 너무 바빴어요. 역사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설 직원들이나 사회복지요원들도 역사관 해설을 도와주고는 했었죠.

김대월 선생님이 전시기획과 전시 진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세요. 역사관에서는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A프로그램, B프로그램, J프로그램, E프로그램이 있는데 B프로그램은 청소 봉사나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봉사활동 차 많이 참가해요. A프로그램은 역사관 해설반인데 해설 배우고 해설을 실제로 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김대월 선생님이 진행하시는데 참가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와요.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이 해설을 하면 필요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J프로그램과 E프로그램은 야지마 츠카사 선생님이 담당하시는데 일본어 해설, 영어로 하는 해설 프로그램이에요.

야지마 츠카사 선생님은 국제 담당이세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연락이나 외국 방문객 응대를 도맡아 하고 계세요. 사진 촬영이나 편집도 직접 하시고, 번역 작업까지 모두 할 정도로 능력자세요. 언어의 마술사여서 일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여러 언어를 잘 구사하세요. 야지마 츠카사 선생님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작년에는 피스로드라고 야지마 츠카사 선생님 주관 하에 한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세미나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학예 업무를 나눔의집에서 처음 했어요. 전시 기획과 전체적인 그림은 김대월 선생님이 맡으셨고 그 이외 전시 진행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많이 담당했어요. 전시 홍보나 제작 업체에 연락하는 등 세부적인 일을 포함해 기안서 작성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당시 생각하면 그냥 너무 바빴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에는 학예 업무만 했는데 행정업무를 하던 전 운영진이 횡령 문제로 갑자기 사무실을 안 나오게 되면서 이후에 행정, 회계 업무까지 제가 맡게 되었어요.

2019년부터 학술대회도 새롭게 진행했어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지원받아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2020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했어요. 학술 심포지엄은 우수 논문을 선정하고 행사 당일에 한 자리에 모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전시회에 심포지엄에 프로그램 진행, 전시 해설에 틈틈이 할머니와 나들이도 다녀오고 2019년도에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니들은 외출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직원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세요. 할머니께서 먼저 바람 쐬러 가자고 자주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 할머니께서는 은행 업무하러 가시는 걸 좋아하셔서 저나 김대월 선생님한테 항상 은행에 가자고 하셨어요. 직원들과 함께 할머니가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식당을 찾아 가기도 하고, 카페나 나들이도 많이 다녀왔어요. 허정아 선생님이 일정을 짜면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자주 나갔었어요. 역사관이든 법인이든 시설이든 우리는 모두 할머니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구 할 것 없이 할머니들과 어울리고 할머니 돌봄도 항상 같이 했어요. 당시 김대월 선생님이 전시 사업으로 한창 바빴을 때라 외근이 잦았는데 허정아 선생님이 할머니 나들이 스케줄에 김대월 선생님을 제일 많이 넣었던 게 안타까우면서 재밌는 추억으로 기억이 남아요.

한 할머니는 화투를 치실 때 거실에 항상 티비를 켜두시거든요. 티비를 켜기 전에 할머니께 매번 여쭙어 봐요.

“할머니 예웁길 틀까요?”

“응.”

‘예웁길’은 나눔의 집에서 찍었던 영상들로 만든 영화예요. 나눔의집 할머니가 주인공이시고 나레이션도 할머니께서 직접 하셨어요. 영화에는 2,000년대 초부터 나오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영상에 등장하셔요.

저는 민화투를 할머니한테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늘 이기시다가 저도 오래 치다보니 점점 실력이 늘었는지 할머니를 연속으로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할머니가 언짢아하시면서 “그 패를 내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호통을 치시기도 하죠. 가끔은 나를 승패를 조절해서 화투를 치고는 했

는데 역시나 할머니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어요. (웃음) 할머니께서는 화투만 들면 몇 시간이고 앉아 계셨어요. 시간이 꽤 지나면 제가 할머니께 허리가 괜찮으신지 여쭙는데 화투 치실 때는 허리가 안 아프시네요. (웃음)

어떤 할머니께서는 저를 키 큰 애기라고 부르세요. 대월쌤은 대월이(대열이), 야지마 츠카사 선생님은 마리오 상, 전순남 선생님은 애기 엄마, 조성현 선생님은 조서방 이렇게 자기만의 애칭으로 부르세요. 할머니께서 관상 보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누구는 귀가 잘 생겼고, 누구는 어디가 잘생겼다고 말씀해주시는데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셨어요.

제가 재작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할머니가 아시고는 “아이고 키 큰 애기 어떻게 하나? 내가 연락해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속상할까봐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키 큰 애기 애인이랑 어떻게 됐나?”고 계속 물으셨대요. 완전히 헤어졌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때부터 욕을 하시는 거예요. “나쁜 놈의 자식, 다 잊어라.” 하시면서. (웃음) 계속 안쓰러워하시고 도덕여주셨어요.

공익제보 후 만나지 못하는 할머니

역사관 인건비는 광주시 플랫폼 사업이나 박물관협회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는 2019년 여성가족부 전시사업을 통해서 입사했어요. 나눔의 집에서는 인건비나 사업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 최대한 외부 사업비를 지원받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역사관은 전시, 심포지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3명은 너무 부족한 인력이었어요. 재작년에는 저희 이외에도 학예사 두 분이 더 계셨어요. 박물관협회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학예사 두 분을 더 모시고 일할 수 있었거든요. 두 분과의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박물관협회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운영진들이 직인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나눔의집에 있었던 스님도 똑같이 박물관협회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았는데 상근도 하지 않은 채 그 돈을 횡령하고 서류 조작한 일을 저희가 제보했었어요. 결국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이후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할머니들의 더 나은 생활과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운영진들한테 개선을 제안하고자 얘기가 오갔어요. ‘할머니의 내일’ 전시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전시물을 제작해주는 업체에서 과청구한 것을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전 사무국장이랑 업체가 같이 짜고 친 일이었어요. 전 사무국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니 갑자기 아프다는 핑계로 8월 말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2019년에는 일을 하면서 나눔의집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전 운영진들에게 제안서를 쓰고 회의 하자고 여러 번 요구하기도 하고 원장 스님을 찾아가기

도 하고요. 처음에는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제안이 거의 1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20년부터 이 문제를 외부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2020년 3월에 운영진을 고소하고, 5월에는 PD수첩에 나가게 되었어요.

PD수첩에 이사님들의 회의 장면이 나와요. 후원비를 안 쓰고 모아둔 것을 잘 했다고 칭찬하고, 호텔 식 요양시설을 만들자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사회 영상들이 서버 컴퓨터에 있었는데 김대월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었어요. 나눔의 집 이사진들이라고 하는 스님들 말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할머니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어요. PD수첩이 방영되고 나서는 매일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었고 사무실 전화벨도 끊임없이 울려서 업무가 마비 될 정도였어요. 알렸으니 이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비슷한 시기에 정의기억연대(이후 정의연)도 함께 이슈가 되었어요. 당시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나선 일인지라 훨씬 크게 알려졌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나눔의집과 정의연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는 전화가 이어졌지만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새로 온 운영진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역사관 직원은 할머니를 만나지 말라는 말 같지도 않은 공문을 써 붙였어요. 할머니들이 자유롭게 1층에 내려오셔서 티비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같이 화투도 치고 하셨거든요. 새로운 운영진들이 오고 나서는 간병인들도 한패 먹고 할머니들을 일부로 1층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1층에는 저희 공익제보자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책임감으로 버틴 3년

정의연 일도 있었고 코로나나 대선 같은 큰 이슈들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힌 데 덮친 격이었어요.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기자 분들께 말씀드리면 방송에 나가기 약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외부 단체에서 연대를 지지해주는 성명서도 내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민관합동조사에서도 할머니들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 아무것도 바뀐 건 없었어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운영진들에게 공격을 덜 받는 편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당하시는 데다 업무 배제도 당하셔서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 곁에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도 저희 곁에서 단체 활동가분들과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직원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니까 변호사님은 그때마다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고 애써주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시니까 저희는 고맙고 죄송하잖아요. 저희도 더 이상 고소·고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눔의집 문제를 이야기하기만 하면 운영진에게 고소·고발 당하니까 어느 순간 위축되고 더 이상 어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2021년 초에는 그만둬야지 하다가 다시 버티고, 11월에는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

어요. 많은 걸 내려놔요. 당시에 좋은 자리를 제안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까봐……(침묵) 못 가시는 거죠. 다들 이 문제에 책임감을 다들 가지고 계셨기에 더더욱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안하고 긴장되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지속 되어서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더 좋아질 거란 확신이 들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언젠가부터 사주를 보러 다녔어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지? 그럼 언제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물어요. 연말이 되면 좋아진다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고, 입춘이 오면 좋아진다고 해서 2월이 되기만을 기다리고요. 그 이후에는 대선까지를 보고 기다렸어요.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저는 입사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갈등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내가 왜 여기서 이리하고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빨리 이직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들 너무 힘들지만 위태롭게 버티고 있거든요, 공익제보를 하고도 아무것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포기하고 나가면 다른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이 빠지시겠어요. 다 힘들지만 서로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나눔의집에 남아 있는 건, 저희가 깊어지고 있는 책임감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서로에게 기대어

공익 제보를 했다고 여러 단체에서 상을 주셔서 받으러 가면 다른 분들은 대개 혼자 오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공익 제보 후에 본인이 힘들어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힘들어지고, 후임이 힘들어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7명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7명 모두 고통 받고 있다는 생각도 함께 들어요.

퇴근 후에 허정아 선생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제가 퇴촌으로 이사 온 후에는 저희 집에 종종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사무실 근처에서 아픈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서 제가 기르게 되었는데 야지마 츄카사 선생님은 고양이를 보러 종종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요리를 잘 하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셔서 함께 저녁을 먹곤 해요.

야지마 츄카사 선생님은 한국에 가족 없이 혼자 계시잖아요. 횡령해서 도망갔던 전 사무국장이 야지마 츄카사 선생님을 추행혐의로 고소하고 요양보호사들이 거짓진술을 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드릴지 상상이 안 돼요. 야지마 츄카사 선생님 처음 오실 때 나눔의집 뒤편에서 생활하시기로 하고 일하신 거거든요. 새로 온 운영진들이 갑자기 뒤편에 요양보호사 휴게실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했어요. 원래 들어가던 출입구 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뒷문으로만 들어가게 됐어요. 야지마 츄카사 선생님이 사시는 공간 입구에 다른 짐들이 널브러져 있고, 운영진 편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조리사가 계속 왔다갔다 드나드는 상황이에요. ‘저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지?’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많이 힘들실 텐데도 전혀 티를 안내시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공익제보 이후에 나눔의집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대로 고립되고, 공익제보 한 직원들은 운영진들의 고소·고발과 업무배제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나눔의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려져서 시민들도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할머니들을 앞세워 이용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나눔의집이 오로지 할머니들을 위해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절대로 잊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군대보다 더한 감옥 같은

- 구술 조성현
- 기록 박영민

아버지와 군대를 떠나

어릴 때 아버지가 크게 다치시고 나서 회복이 됐는데 하실 수 있는 일이 막노동 밖에 없었나 봐요. 중학교 입학할 때쯤 조그마한 건설 시공 업체를 차리셨어요. 그 후로 저랑 동생은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에는 건설현장 인부로 살았어요. 특성화고 건축과로 진학했고 대학도 건축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부터 아버지 일을 해서 그런지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하물며 알바를 해도 혼났어요. 왜 아빠 일 안 돕고 알바를 하냐고 다그치셨죠. 자유롭게 싶었어요.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곧장 실행으로 옮겼어요. 대학을 자퇴한 후 부사관으로 입대해버린 거죠. 아버지의 강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스물한 살이 되던 해에 들어간 군대는 참 좋았어요. 일종의 중간관리자 격인 부사관 역할이 적성에도 잘 맞았어요. 단체생활하면서 소대원 관리하며 재미있게 일했어요. 보통 중간만 하라고 하는데 또 중간만 하면 혼나니까 적당히 중간에 걸쳐있는 전형적인 군 생활을 보냈어요. 저는 동료애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군대는 아예 같이 살고 먹고 같이 일하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 항상 뭉쳐 있었어요.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좋아서 계속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좀 지치더라고요. 막노동이 싫어 군에 왔는데 막노동은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계획, 같은 일정, 반복되는 일상... 바뀌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군에서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고민하다 우연히 사회복지를 알게 되었어요. 마침 근무하던 곳 근처에 야간대학이 있었고, 사회복지학과와 문을 두드린 거죠. 복지라는 게 누군가를 돕는 일이잖아요. 내가 솔선해서 그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또 부사관으로서 사병들에게 제공하던 복지와 유사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군에 있을 걸, 괜히 나와서 이 고생을 하나 싶네요.

부실공사와 열정페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나눔의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곳을 소개한 교수가 당시 나눔의집 시설장이었어요. 그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20시간 이상(현재는 160시간)의 현장실습이 요구된다.

자세히 몰랐는데 실습 과정에서 공부를 했고 할머니들과 정도 많이 들었어요. 실습 끝나고도 도와드리고 싶어 몇 개월간 봉사도 했어요. 운 좋게 직원 채용 공고가 떠서 바로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더라고요. 2018년 10월이었어요. 뭔가 역사적인 공간에서 할머니들과 정식 직원으로 함께 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입사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때는 이유를 잘 몰라 간단하게 무시했는데 아마 은연중에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업무는 자원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후원물품과 시설 관리 같은 일이에요. 아홉 동 정도 되는 건물을 제가 도맡아 관리했고 소방안전관리 역할도 수행했어요. 시설 기능보강사업이나 증축 같은 일에도 투입됐고 차량 관리도 어마어마했죠. 주간 근무였지만 건물에 하도 하자가 많아서 저녁이고 주말이고 출근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비리로 대충 지은 곳이어서 그런지 부실 공사로 의심되는 곳이 많았어요.

진짜 나눔의 집 건물들은 최악이에요. 그나마 나은 게 역사관이요. 제2역사관 격인 추모관을 가보면 화장실도 없고 방문객 동선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부실하게 지어놓았냐면 아마 2019년쯤에 준공했는데, 벌써 천장 보드가 무너져 썩고 있고 바닥 외장재는 다 떠 있죠. 습기 가득하고 페인트는 다 일어나고... 안 무너지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추모관 위쪽에 보면 한옥 건물로 절을 만들어 놨거든요. 나무랑 흙 이음새가 다 벌어져서 밖에서 안이 다 보일 정도예요. 절이라고 하면 질타를 받을까봐 모임 공간으로 해놨다나 어쩔다나... 그리고 영상관 건물은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서 원래 '귀향' 영화를 상영했는데 지금은 문만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화학제품인지 본드인지 냄새가 아직도 나요. 냄새가 너무 난다고 건의했더니 양파를 갖다 놓으래요. 본드 냄새를 잡기는커녕 양파 냄새까지 나더군요. 또 교육관이라고 초창기에 할머니들이 생활하셨던 건물이 있는데 생활관이 짓고 난 이후로 지금은 봉사자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문제는 교육관 옥상에 범당을 불법 증축해서 만든 점이에요. 퇴촌 면에서 철거명령 매번 보내는데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요.

한 번은 설 연휴에 귀향하려는 참에 보일러가 터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달려가야지 어찌겠어요. 딱히 할 줄 몰라도 일단 달려갔어요. 그 때는 연장근로 신청은 생각도 안 했고 연차도 안 썼어요. 일 년 지나니 연차휴가가 12개나 남았더라고요. 그만큼 열정페이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그렇게나 일했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던지 할머니들과 맺은 정이 참 소중한지요. 한 할머니는 다른 지방의 댁에 계셔서 주로 제가 방문 드렸는데, 저를 '조 서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것저것 필요하다 하시면서 편하게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옥생활

사무실의 상급자는 시설장과 사무국장이었고 간호사와 저를 포함한 두 명의 사회복지사와 회계 선생님이 업무를 봤어요.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과 운영 법인 간의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죠. 시설 일도 하면서 법인 일, 역사관 일을 자연스럽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병행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법인 회의를 했는데 역사관 학예사 분들과 시설 업무 직원들이 동석했어요.

나눔의집 비리 문제를 깨달은 건 입사 후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일하면 그게 누구든 인지할 정도로 문제가 노출되어 있었죠. 한 번은 시설 예산으로 할머니 치약을 구입했다가 아단맛은 적어 있어요. “후원물품으로 구하지 않고 왜 예산을 쓰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보조금이 몇 억씩 들어오는데도 모든 걸 후원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거죠. 생필품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면 운영비용은 모두 어디에 사용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할머니들이 입는 옷들은 다 오래된 옷들이었어요. 그 많은 기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종교 활동 밖에 없고, 그것도 봉사자들이 모시고 갔다 와요. 분명 욕구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완전 판관이었어요. 하루는 사무국장에게 따졌어요. “할머니들이 외출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프로그램도 없고 원래 이런 곳입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연세가 많으셔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하루는 할머니가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났어요. 당시에 간호사 선생님이 휴무였는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재빨리 응급 처치하고 돌보고 처리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휴무 중인 간호사한테 연락해서 사건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등 보고체계를 두고 꾸짖기만 했어요. 할머니들에게 최소한도 못해주는 게 무슨 복지요? 최소한도 못해주는 게... 시설장과는 원래 애뜻했지만 자연스레 멀어졌죠.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저는 여기 양로시설이 군대랑 비슷하다, 아니 군대보다 훨씬 못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군대는 똑같은 타임테이블로 육성하고 일정한 사상도 주입시키잖아요. 여기도 할머니들이 한 번 입소하면 기밀 곳은 여기이니 말도 잘 듣고 눈치도 봐야하고 여기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주도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뭐, 군대만도 못하죠.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시니.

지금 할머니들이 생활하시는 곳이 생활관 2층이에요. 창문을 너무 높은 곳에 달아놔서 할머니들이 바깥 구경하시기도 힘들어요.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보이는 정도인데 허리도 굽으시고 그게 됩니까? 완전 감옥생활이죠. 그리고 창문이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고 밖에서는 안이 보이는 정도의 높이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옛날 위안소가 감시 목적으로 그런 구조였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원래는 여기가 단층 건물이었는데 한 층을 더 올리면서 옥상난간이 웅벽이어서 허물지 않고 창문을 올렸어요. 그러다보니 이 꼴이 된 거죠. 생활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는 지하공간에는 항상 물이 차서 직원들이 물을 다 퍼서 빼내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최소한을 위한 싸움

공익제보자들과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그만큼 끈근했어요.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빼고는 할머니들을 위한 마음에서는 한 몸과 다름없었어요. 모두가 우리 외에는 의지할 곳도 없기도 했고 인간적으로도 되게 친했어요. 거의 매일 같이 식사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들의 억울한 시설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졌죠. 함께 분노했고 항상 의논했어요.

처음에는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가 건의한 내용은 정말 별 거 아니었어요. “할머니들 옷 좀 사드립시다. 먹을 거 좀 사드리고 바깥에도 나가게 해드립시다.” 그럼에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회의에서도 건의하고 따로 만나서도 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지요.

결국 법인 대표이사를 만나서 간청하기로 작정했어요. 만나달라고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바깥에서 서니 시간을 기다리다 가까스로 대표이사를 만났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썩하고 지나가더군요. 분명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제스처로 느껴졌죠. 어쩌면 이 사건이 나눔의집 공익제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알리기 1년 정도 전부터 내부적인 정화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물론 그때만 해도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월급을 올려달란 것도 아니고 그저 할머니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구하면 당연히 해결될 줄 알았어요. 보통의 가난한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후원금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이걸 못해줄까 싶었죠. 솔직히 당시에 ‘그래 알았다’ 한 마디만 해줬어도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울면서 같이 본 피디수첩

2020년 5월 19일은 MBC <PD수첩-나눔의집에 후원하셨습니다>가 방영되던 날이었어요. 저희 울면서, 한테 모여 울면서 봤어요. 그전 1년이 너무 힘들었고 처음 경험해보는 유형의 고됨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게 가장 힘든 일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PD수첩 보다 보니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구나!’, ‘이제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며 감격에 찬 눈물을 흘렸어요. 내용 자체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클 줄 알았어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힘든 아픔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 현재도 아픔이 유지되면 안 되죠. 그런 생각으로 진행했고 워낙 직원들과도 돈독했기 때문에 몹시 하고 싶었어요.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잘리겠지?’ 그 정도 걱정 밖에 없었고요. 잘려봤자 지금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잃을 게 없었죠. 무엇보다 옆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하지만 뜨거웠던 반응은 금세 식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이 없던 것처럼 사람들도 똑같이 관심 없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잠깐 연민의 마음 반짝인 거죠. 저희는 진짜 다 될 줄 알았지만 말이에요. 그 무렵 정의연 사태가 터졌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윤미향 씨가 나눔의 집을 관리하는 줄 알더군요. 사건들이 뒤섞여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묻힌 지점이 커요. 정말이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잠깐 반짝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애초엔 몰랐어요.

방송이 나가자 법인에서는 어떤 스님을 내려 보내 일종의 증재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저희를 닦하기만 해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 “행정 구조상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등 뜬금없는 이야기들만 하면서 우리를 몰아가요. 점점 일이 커지면서 변호사도 섭외하고, 관리자 사임되니 새로운 조계종 편에 선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들이더군요. 오로지 은폐하고 꼬리 자르는 데만 혈안이었어요.

달라진 할머니들

처음에는 공익제보 과정에 대해 할머니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들이 응원해주셨고 더 힘이 됐지요. 그런데 2021년 4월 새로운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부임한 이후로 할머니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루밍이라고 하나요? 하루하루 예전과는 달라지는 것이보였어요. 누군가 할머니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할머니들이 어느새 저희랑은 대화도 안 하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들 심정을 이해는 해요. 살던 곳을 떠나 여기에 오는 과정 자체가 힘 드셨을 텐데, 여기는 결국 시설장이 범이고 몸담고 사셔야 하는 곳이에요.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시설장이라 생각하시는 거겠죠? 다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죠.

지금도 매일 할머니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가장 속상할 거예요. 할머니의 입에서 '간호사가 일을 못한다'는 말씀을 나오게 만들어요. 원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임시 대표이사한테 운동치료를든 뭐든 좀 시켜달라고 1년 넘게 사정해서 결국 성사된 적이 있어요. 그 덕분인지 그 할머니가 좀 걸어 다니시는데, 그걸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만 몽클할 뿐 곁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할머니를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뿐이에요.

오히려 새로운 관리자들이 오기 전 시점이 할머니들에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고 난 후로는 할머니들 외출도 없어지고 정신교육만 엄청 시켜대고... 병원 가는 일 말고는 나가시지도 못해요. 결국 저희들이 노인학대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어요. 그것도 학대네 아니네 하며 다투는 게 참 괴로웠어요. 어느 순간 우리 때문에 할머니들의 삶이 더 피폐해진 것 같아 죄송스러워요. 그나마 누리던 삶마저 더 힘들어진 건 아닐까. 괜히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더더욱 할머니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할머니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 시작했는데 괜한 공익제보를 하는 바람에 더 힘들어지셨구나. 지금은 할머니들이 내려오셔도 제가 잘 안 보게 돼요. 우리 싸움은 지금도 할머니를 위한 싸움일까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

입사할 때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했고 그렇게 알고 들어온 거지만, 알고 보니 허위 공고였어요.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보고 위생원이라는 거예요. 따져 물었더니 "계약서상 위생원일뿐 나중에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받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급여보다 위생원의 그것이 훨씬 낮아요. 솔직히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니어서 그냥 계약했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보조금으로 할당된 사회복지사는 한 명뿐이었고, 당시 사무국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요. 기존에도 위생원이나 요양보호사니 해서 뽑았다가 선임으로 올리고 법인으로 돌리고, 체계가 엉망이었던군요. 저랑 허정아 선생님은 위생원이고 요양보호사였지만 그런 직무는 시키지도 않았어요. 찾아보니 위생원의 주 업무가 세탁이더라고요.

이후에 공단에 알아보니 사회복지사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 1급 준비 자격도 안 되고 완전히 제가 속은 거예요. 시설에 향의하니 그제야 추가금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무마할 목적인지 1년 정도 주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줘요. 돈 문제보다 경력이 저한테 중요한데 공익제보와 함께 이

사안은 흐지부지됐죠. 앞으로가 걱정이예요. 유사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하지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감수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지금 저희는 오랫동안 업무 배제를 당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업무에서 제외시킨 상태죠. 알아서 나가라는 뜻이겠죠. 그냥 책상만 있는 거예요. 출근을 해도 일 없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 아침에 늦잠을 자더라도 일도 없는데 가서 뭐하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나눔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본연의 업무는 다 사라졌고,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곤 잡일밖에 없어요. 가령 돌침대에 불이 안 들어온다 해서 가보면 전기코드가 빠져있어요. 조용히 꽃아 놓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책상에 앉아만 있어요.

불면증이 무척 심해졌어요. 쉽게 잠에 못 들다가 새벽 서너 시가 되어야 겨우 자요. 그것도 다시 한 시간 단위로 깨다보면 아침이에요. 직장 가서 신나게 일을 한다면 피곤함도 모를 텐데 일도 없으니 무료함과 스트레스, 수면장애의 반복과 악순환이에요. 운동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늘 피곤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최근에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했는데 무게를 좀 높게 잡았나 봐요. 잠깐 기절을 했는데 기절 당시의 편안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뭐랄까, 좋으면서도 섬뜩했어요. 최근 어느 선생님은 자살 생각도 했다던데 그게 이해가 갈 정도였죠.

인생 3막

우리는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을 많이 받아요. 고맙지만 의미가 없어 보여요. 상을 주면 뭐 해요. 현실이 안 바뀌는 걸요. 상을 주는 단체는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보고 힘들어도 계속 버텨내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이제 상은 필요 없으니 문제가 해결되게끔 도와주면 좋겠어요.

아니,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가 봐도 진 싸움이거든요. 임시이사도 사퇴하기로 했고 조계종 측정이사로 교체되면 싸움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임시이사들마저 승산이 없다며 손 들고 나가는 판이니 말 다 했죠. 우리를 도와주시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만둘 사람은 그만되라.", "여기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가서 뭘 할지 준비해라." 공익제보자들의 손을 떠났다는 메시지죠.

이 싸움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제 그만 실리를 찾아라'고 하시니 혼란스럽고 희망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싸우고 있지만, 이 대목 앞에서 뭐랄까, 어렵고 복잡한 심정이 들어요. 계속 싸워야 할지, 아니면 진짜로 제각각 좋은 자리 찾아 가야 할지... 여기를 나간다고 한들 어디서 저를 받아줄까요? 이미 공익제보자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걸요. 더군다나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 못 받는 터라 어디 가서 면접 보기도 힘들고 참으로 좌절감을 느껴요.

아버지의 기대를 버리고 군대를 선택한 7년이 저의 인생 1막이었다면, 나눔의 집에서 2막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평생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온 나눔의 집이었어요.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자신 있었어요. 길지 않은 세월에 뜻하지 않게 지나간 싸움이 되어버렸네요. 인생 3막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들은 제가 아직 젊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청

소년 때부터 아버지 일을 한 이후로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평생직장도 이제 사라지고, 그렇다고 경력도 인정 못 받고... 마음이 조금해요. 모은 돈도 없고 할머니들에게 사비도 제법 털기도 했어요. 어딜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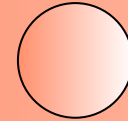
공익제보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싸움은 성공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도 말이죠. 저는 다시 한 번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하고 싶고, 이렇게 실패한 과정과 결말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요.

주위에 공익제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말리고 싶어요. 시민사회도 도와주셨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보자가 하는 거더라고요. 섭섭하시겠지만 다들 말로만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기댈 생각하면 안 돼요. 제보자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싸움의 질이 달라지는 거지, 그 누구의 도움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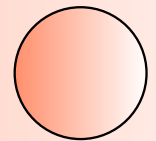
만약에 공익제보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그래도 저는 공익제보를 할 것 같아요. 당시 할머니들이 힘들게 사시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과거의 나에게는 공익제보를 말리지 못하겠네요. 하긴 하겠지만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똑똑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싶어요. ♡





나눔의 집이 아닌 싸움의 집

야지마 츠카사 · 이호연 기록



나눔의 집이 아닌 싸움의 집

- 구술 **야지마 츠카사**
- 기록 **이호연**

배낭여행

초등학교 다녔을 때 제가 역사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때는 석기 시대나 고대 시대 같은 옛날 시대에 관심이 많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90년대 초반, 대학에 들어갔는데 역사를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대학에 입학해서 한국, 중국, 대만 등 소위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때 유학생 친구들로부터 일본이 아시아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지배했다는 걸 처음 듣게 됐어요. 일제 강점기를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역사 교과서에는 위안부 역사 내용 자체가 없어서 몰랐거든요. 91년에 한국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하면서 이슈가 됐고 그 다음부터 교과서에 실는 문제로 논쟁이 시작됐어요. 남경대학살 얘기는 교과서에 있었어요.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중국 남경에서 30만 명 되는 시민을 학살 했다는 한두 줄 정도의 설명이었어요. 이때부터 일본이 전쟁 때 나쁜 일을 한 것 같다는 걸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막연하게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입학하고 중국인 유학생을 만났을 때 남경대학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잘 몰랐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일제 강점기를 배운 한국인 친구들이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서울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 있다, 유관순 역사도 있다. 네가 역사에 관심이 있으니 한국에 오면 안내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92년 2월인가 3월인가 처음으로 한국에 갔어요. 스무 살 때부터 방학 때마다 혼자서 일본과 연관된 아시아 나라의 역사적 장소를 답사하는 배낭여행을 했어요. 처음 간 곳은 콰이강의 다리가 있는 태국이었어요. 태평양 전쟁 때 철도를 놓으면서 일본군이 만든 다리예요. 일본군이 현지인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이런 장소들을 찾아다녔어요.

가족과 전쟁

제 할아버지 세대가 2차 대전을 겪은 세대예요. 배낭여행을 다니다 보니 전쟁 때 제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1932년부터 1944년까지 친할아버지가 만주철도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주 철도는 일본 식민지 지배와 정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일본에 계실 때 친할아버지가 건설회사 기술자이자 관리자로 일을 하셨어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셨어요. 만주국에 철도가 생기고 직원들을 모집할 때 일본에 있는 건설회사 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 준다고 해서 친할아버지가 만주로 간 거죠. 처음엔 친할아버지 혼자 만주에 가셨는데 나중에 친할머니와 딸 둘이 같이 만주에 가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할

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병원에 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만주에서 살았을 때 너무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넓은 집에서 살면서 하우스 키퍼가 있었고 아주 좋은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일본과 만주의 경제 차이가 많이 나서 일본에 비해 만주에서는 더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만주로 건너간 이유에 따라 생활수준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농사도 장사도 안 되고 생활하기 어려워서 만주까지 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주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만주에 가면 농사 지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냈거든요. 사실 당시에 만주라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만주 철도에서 일했기 때문에 친할아버지는 만주에 있던 다른 일본 사람들이 알 수 없던 정보를 빨리 들 수 있었다고 해요. 일본이 전쟁에 패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먼저 듣고 제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1944년에 가족이 일본으로 귀국을 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만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비싼 도자기와 집시를 땅에 묻고 왔다고 들었어요. 1945년 8월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저희 가족은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은, 당시 만주에 살던 일본 이주민들은 어머 어마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중국인 가정에 아이를 맡긴 채 귀국하고 만주에 들어온 소련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기록들은 남아 있어요. 중국인 가정에서 생활했던 일본인 애들, 이제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죠. 일본 정부가 이들의 귀국 사업이나 가족 방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조선인 여성들 중 한국으로 못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제가 나눔의 집에 있을 때 중국에 가서 그분들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 여성들에게 하나도 해 준 게 없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일본 부모에게 태어나서 중국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도와준 거예요. 이건 차별인 거죠.

91년에 한국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했고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 됐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일제 시대 때 군인이었고 중국에 가서 오래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외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위안부를 아세요?" 외할아버지가 얘기를 피하셨어요. 아, 외할아버지도 뭔가 있었구나.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할아버지가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처음 먹었던 바나나 향 얘기만 하셨어요. 중국 남쪽에서 군인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는 바나나가 많이 있었나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할아버지가 위안소도 가봤고 어쩌면 중국인도 학살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 역사에서 일본 지배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면서 아, 당시에 일본 국민이 군사 문제와 관계를 가지면서 일본 지배를 확대하려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는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전쟁으로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얘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폭탄에 의한 피해를 당했고 너무 힘들었다. 피해자로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몰랐습니다.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저도 몰랐어요.

문제에 닿기 위한 여정

대학교 때 인도 역사를 배우는데 저는 계속 일제의 역사가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일본은 메이지 시대를 거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군사화 되고 부자 나라가 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 근대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일본과 제가 직접 듣고 본 일본은 완전히 달랐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일본 정치, 역사,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어요. 비슷한 시기에 페미니즘, 젠더 문제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중요한 주제로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일본의 페미니스트예요. 이들은 위안부문제가 일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일본에서 저는 이들이 쓴 책이나 논문, 언론사 토론회를 봤어요. 페미니스트들은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차별을 받고 있는 제일 동포의 인권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일제 강점기 역사 중 제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페미니즘의 영향이 컸어요.

저는 남성이지만 남성성을 싫어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부모님이 싸우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놀라서 그냥 있었어요. 어머니가 빨리 밥 먹고 학교가라고 해서 갔는데 갔다 오니까 집에 어머니가 없고 외숙모가 집에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일이 있어서 외할아버지 집에 갔고 언제 돌아올지 얘기는 없었는데 저와 동생을 돌봐주러 왔다고 외숙모가 얘길 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기억이 제가 남성성을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 같아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동시에 제가 언론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녔을 때 제 생일에 친구가 사진 전시회 입장표를 선물로 줬어요. 브라질 사진작가 세바스티안 살가도의 전시였어요. 이 사진작가는 세계에 있는 노동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사회문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살가도 사진의 노동자들이 아름다워서요. 노동 문제를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주로 비참하거나 투쟁하는 노동자 이미지에 살가도 사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현실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전시회 전에도 제가 사진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배낭여행 다니면서 콤팩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배낭여행에서 돌아오면 전시회 입장표를 준 친구를 만나서 제가 찍은 사진을 같이 보곤 했어요. 친구가 사진을 보고 “이거 잘 찍었네, 이거 뭐야?”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전시회를 갔다 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포토 저널리스트인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선물로 전시회 입장표를 준 친구에게 고마워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진을 배웠고 90년도 후반에 일본 언론사인 아사히신문 계약직 사진 기자로 2년 동안 일했어요. 그 다음은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제 강점기와 탈식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일을 하던 이 주제로 사진작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2000년도 봄에 신문 광고를 봤어요. 동아시아 공동 워크숍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신문 광고 내용을 보니 나눔의 집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 영화 ‘낮은 목소리’를 봤기 때문에 저는 나눔의 집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공동 워크숍으로 한국에 처음 왔고 나눔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때 할머니들을 만났지만 증언을 듣거나 역사관을 보고 차분히 설명을 듣는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나

눔의 집 근처 식당에 가서 할머니들과 인사하고 같이 밥 먹는 정도였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기대했거든요. 아쉽긴 했지만 그때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나눔의 집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동아시아 공동 워크숍은 97년부터 시작됐어요. 일제 시대 때 홋카이도 슈마리나 댐을 만들 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강제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지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살해당해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죽은 사람은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이후에 이런 역사를 동네 주민들이 알게 됐고 1970년대에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공동묘지에서 유골 발굴 작업을 시작했어요. 20년, 30년 지나 작업을 시작했던 주민들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후임자를 생각한 주민들이 한일 공동으로 97년에 동아시아 공동 워크숍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번갈아가면서 워크숍을 개최해요. 지금까지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발굴 된 유골들이 있잖아요. 누구 유골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한국에 사는 가족들이 유골을 찾아간다고 해야 DNA 확인도 가능해요. 유골을 찾기도 살아있는 사람과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DNA 검사를 못 해요. 누구 유골인지는 알 수 있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유족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골을 관리해 왔어요. 2017년인가 그동안 일본에서 발굴한 유골을 모아서 일본 홋카이도에서 출발 해 부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70년 만에 귀향>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평화디딤돌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가 공동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2022년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멀고도 가까운 사이

92년에 나눔의 집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가 95년에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했고 98년도에 역사관을 개관했어요. 92년부터 할머니들을 방문하는 일본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다 더 호의적이었고 뭔가 하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준비 단계부터 일본에서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역사적인 자료는 한국보다 일본이 많으니까 일본 역사학자들이 자료를 찾아서 복사해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한일 간에 시민들이 협력하고 연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만들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일본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직원 중의 한명이라도 일본 사람이 있는 게 일본 방문객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눔의 집은 인권을 지향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한 일본 사람과도 연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만든 공간이에요.

일본에 돌아와서 나눔의 집을 계속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나눔의 집에 가서 할머니 옆에서 제가 사진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눔의 집 방문했을 때 일본인 직원한테 이미 물어봤거든요. 나눔의 집에 와서 사진을 찍고 싶는데 가능하냐고. 나눔의 집에서 1, 2주 정도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진 찍는 거 괜찮으니까 오라고, 연락하라고 일본인 직원이 얘기해줬어요. 근데 바로 나눔의 집에서 내부적인 사정이 생겨서 직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2년 정도 기다리다가 2002년도에 다시 나눔의 집에 연락을 했어요. 사진 찍으러 와도 괜찮다고 나눔의 집에서 답을 줬어요. 2002년에 나눔의 집에 일주일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오고 몇 개월 후에 다시 나눔의 집

에 와서 할머니들하고 지내면서 2주 정도 사진 촬영을 하고 일본으로 갔어요. 나눔의 집에 두 번째 갔을 때 직원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눔의 집에 와서 같이 일을 할 생각이 있냐고.

나눔의 집에는 98년도에 개관 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있어요. 일본인 직원이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일본어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방문객들이 오면 할머니 중 한 분이 역사관 안내를 하고 통역도 하셨대요. 전시실에 들어가면 위안소 모형이 있는데 할머니들의 증언에 따라 재현한 거예요. 방문객이 모형으로 만들어진 위안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위안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데 나눔의 집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어를 할 수 있잖아요. 나눔의 집에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한 거죠. 2003년 초에 제가 일본을 떠나서 나눔의 집에 왔고 2006년 까지 독일에 가기 전 3년 동안 나눔의 집에서 일했어요.

와서 보니 제가 나눔의 집에 올 때 할머니들에게 다 동의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직원들끼리 결정한 다음에 할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른 할머니의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할머니 한 분이 왜 일본 남자가 오냐고 반대를 하신 거죠. 온다는 일본 남성이 뭐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얘기를 하셨대요. 직원이 저에게 특히 A 할머니하고 잘 지내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했어요. 직원들은 제가 사진 찍으러 왔을 때 어느 정도 얘기도 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해방 이후 세대니까 직원들은 직접 피해 당사자도 아니고요.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잖아요. 제가 일본 남성이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할머니에게는 일본 군인과 겹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눔의 집에 와서 제가 한 일이 방문객이 오면 역사관을 안내하고 방문객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남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할머니들이 여덟 분 정도 계셨는데 다섯 분 정도는 돌아가면서 방문객들에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만남을 연계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A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실 건지 물어봤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안 하겠다고 다른 할머니 시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A 할머니는 말할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사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잘 들어봐, 진짜 피해자는 나밖에 없어.” 자기만 증언을 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A 할머니가 다시 방문객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랑 대화도 시작하셨고요. 전에는 할머니가 제 인사도 제대로 안 받으셨거든요. 일단 큰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할머니와 가까워지려고 일부러 찾아가진 않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나눔의 집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인정해 주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여기 와서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일하고 싶은지,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마음을 여신건지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네가 여기 와서 잘 되는 것 같다는 말도 해 주셨어요.

말의 역사

나눔의 집에 왔을 때 제가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가 가서 전자사전을 샀어요.

전자사전을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봤어요. 빨리 한국말로 할머니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게 저에게 컷던 숙제라고 할까요. 외국인이 학생으로 한국에 오면 학교를 다닐 기회가 있는데 저는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은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광주 시내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데 제가 나눔의 집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서울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학당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물론 할머니들 중에도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할머니들이 하시는 일본말은 학교에서 배운 것 보다 위안소에서 일본 군인들이 강제로 시켜서 배운 말이에요. 일본말을 안 하고 조선말로 하면 할머니들이 되게 맞았다고 해요. 할머니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본말을 배웠던 거죠. 할머니들이 일본말을 쓰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가능하면 제가 빨리 한국말을 배워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들하고 한국말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일본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한국말을 배우는 동안 제가 잘 못하니까 할머니들이 답답하셨나 봐요. 처음에는 한국말로 얘기하다가 제가 한국 단어를 못 쓰면 할머니들이 일본말로 하기 시작하세요. 한국말로 하면 이거라고 일본말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한국말을 배웠어요. 근데 B 할머니는 제가 나눔의 집에 와서 자신도 일본말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한국말 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할머니가 한국말, 한국 문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B 할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이분이 살아온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42년인가 43년인가 중국으로 끌려가셨대요. 해방 이후에도 바로 한국으로 못 돌아오시고 중국에서 계속 생활 하시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일본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80년대에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B 할머니가 일본어, 일본 사람 일본 문학, 일본 노래 다 좋아하세요. 나눔의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일본에서 방문객들이 오면 할머니가 같이 일본 노래를 부르자고 하세요. 할머니가 일본에 있을 때 술집에서 가수 생활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한국사람 욕도 하시거든요. 몇 십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남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도둑놈이다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나눔의 집에 방문한 일본 사람은 미안한 마음으로 한국 역사를 배우러 왔는데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 헛갈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황을 다시 설명해요. 한국에서 겪은 일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저한테 일본 과자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약간 오래된 느낌이 들었어요. 유통기한을 보니까 팔십 몇 년이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신 건지 아니면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누군가 선물로 가져온 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물건을 잘 못 버리세요. 물건이 쌓여서 할머니 방에 문을 열지 못할 정도예요. 한국은 온돌이어서 겨울이라도 복도가 따뜻하니까 할머니가 복도에서 주무셨어요.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지만 할머니가 일본 사람, 일본 노래 좋다고 말할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생애니까요. 오히려 문제는 극우파나 역사수정주의자가 그것보라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고 하면서 피해 사실과 가해자임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외부에서 볼 때는 똑같은 피해자일 수 있을 거예요. 사회가 할머니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할머니

들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가 아니었으면 저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피해성과 가해성은 저에게 중요한 주제니까 나눔의 집에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사진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하나로 묶어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이름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끌려간 연도도 다르고 한국으로 돌아온 때도 달라요. 해방 후 어떻게 살았는지, 나눔의 집에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식으로 위안부로 끌려가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사람의 생애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달라요. 공통점이 있다면 일제 강점기 때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죠. 그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이예요.

피해 생존자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생존자가 다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한 10년 있으면 할머니들이 다 안 계시게 되요. 이제 대한민국에 피해 생존자가 14명밖에 없어요. 14명 중에 네 분은 나눔의 집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눔의 집이 아닌 곳에 계시요. 지금 나눔의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할머니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본 적도 없고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살아계신 피해생존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위안부 피해자로서 이분들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이름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나서 알게 된 것

나눔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설이지만 사실 싸움의 집이에요. 할머니들과 같이 생활 해보면 이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싶어요. 할머니들이 위안부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분들을 미화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예요. 할머니도 싸우고 거짓말도 하고 욕심 많을 때도 있어요. 할머니들끼리도 싸우고 나랑 할머니도 싸워요. 근데 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혈연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살고 있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때도 있어요. 이분들이 피해생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없어요. 평등한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이 노력해 왔던 점을 인정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할머니들과 상하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할머니가 저에게 불만이 있으면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피해생존자로서 할머니들을 만나니까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나눔의 집에 있으면서 배운 게 많아요.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자료를 찾아서 어느 정도 읽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보는 증언집은 할머니의 말이 인쇄가 돼서 출간 된 거잖아요.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할머니에게 직접 들었던 얘기는 증언집에 없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증언집에는 고생했다, 아팠다, 용서할 수가 없다, 주로 고통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할머니가 직접 하는 얘기에는 가족, 연애 등 더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렸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이미지에 더 다양한 이미지가 추가됐다고 할까요?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입체적으로 다가왔다가 할까요? 이분들의 얘기가 저에게 새롭게 구성됐어요.

가해국가의 차이

나눔의 집에서 2006년까지 일하다가 결혼과 함께 독일로 갔어요. 제 삶을 보면 전쟁의 가해국가인 일본에서 태어났고 피해 국가인 한국에서 살았고 또 다른 가해 국가인 독일에 간 거죠. 일본처럼 독일도 전쟁의 가해국가지만 차이는 독일에선 지금도 계속 나치의 역사를 청산하려고 하고 기억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이에요. 독일에 가면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기대가 있었어요. 다행히 독일의 시민 사회 활동과 정치가 나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청산하는지 현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전시 성폭력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치의 중심적인 행정 조직인 SS 장교들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용소에 있었던 수용자에 의한 것이 있었어요. 독일 SS 장교들에 의한 성폭력이라면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 의한 가해는 무엇이였을까요? SS 조직은 수용자 중에서 다른 수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중간관리자인 거죠. 중간 관리자 중에서 노동 생산량이 많거나 관리를 잘 한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가해가 있었고 SS 조직은 이것을 용인했어요. 전시하의 성폭력에 대한 활동과 연구는 유럽보다 아시아가 훨씬 앞섰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유대인 수용자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항상 피해자의 위치인데 성폭력의 가해자라는 게 드러나면 피해자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역사의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가 중요해요. 근데 자료를 분석할 때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인권 침해로 얘기 하지만 독일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윤리적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전엔 독일에서 과거극복이라는 단어만을 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가 정말로 극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논쟁을 시작했어요. 역사는 '극복'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독일어 단어는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요. 끝없이 역사와 대면하고 역사를 발굴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계속 사회에 공유하고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끝이 없이 끝이 없이'가 중요해요. 역사 발굴부터 분석, 결과, 공유, 기억을 포함하는 역사 활동으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일본은 이게 없어요.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고 그냥 화해만 얘길 해요. 사실 유럽에서도 기독교나 천주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화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독일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연 화해를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속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고민 없이 그냥 화해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길 해요.

유럽에서는 해방한 날이 5월 8일이예요. 해마다 독일 연방 수상이 연설을 해요. 메리켈 수상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독일 국민들이 끝도 없이 사죄해야 한다. 이 역사는 절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주변 피해 국가 사람들도 안심이 되잖아요. 아베처럼 미래 세대가 사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주변 피해 국가 사람들이 불안하죠. 독일 수상의 연설문은 다시 읽어봐도 설득력도 있고 윤리적인 관점도 있고 잘 썼어요. 피해자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해자 스스로가 안 움직이면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사과해라, 배상해라, 역사를 기억하라고 해도 가해자가



듣는 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독일이 과거사 청산을 해왔다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1945년 5월에 전쟁이 끝나고 나치가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동서독이 분단이 되고 연합군의 지시를 받아서 서독 정부가 비나치화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전범 재판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공무원,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중 나치가 살아있었어요. 전쟁 때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이나 나치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을 일단 추방 시켰어요. 추방 기간이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방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68년도에 세계적으로 학생 운동이 있었잖아요. 대학생을 중심으로 독일 사회가 너무나 권위주의적 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알고 보니 저 교수가 나치였다는 거죠. 왜 나치가 여기 있느냐.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68세대가 부모한테 나치시대에 뭘 하고 있었느냐를 묻고 활동을 하면서 다시 나치의 역사를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과정을 분석하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 피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 스스로 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독일을 바꿔야 한다는 독일인의 인식이 역사 청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독일 시민사회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독일에서도 극우파 세력이 생겨서 이들이 만든 정당도 연방 정부의 제3정당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극우파 정당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독일 연방 정부를 보면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상관 없이 나치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자민당하고 공산당이 일제 시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시다시피 아베의 자민당 경우에는 일제 시대 역사를 미화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당은 반대예요. 일본은 잘못했다.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고 대면해야한다고 말해요. 일본 국회에서 일제 역사에 대한 통일된 입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베를린에 코리아 협의회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단체 대표인 한정화(나타리 한)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60분짜리 한국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영화는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 중국, 대만 그리고 네덜란드 피해여성의 증언이 나오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영화를 보고 제가 찍었던 할머니 사진을 보고 나타리 한이 강의를 했어요. 고등학교, 시민단체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고 몇 년 동안 독일 전국을 다녔어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독일의 언론사는 90년대부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왔거든요. 하지만 독일인들도 자세하게 위안부 제도와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거죠. 얘기를 들은 독일 사람들의 반응 중 놀라운 게 나치 시대 때 우리도 비슷한 게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럴 제가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했어요. 끝나고 한 여학생이 저희한테 왔어요. 지금까지 얘길 못 했지만 자기도 성폭력 피해자라고 말했어요. 위안부 여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피해 사실을 얘기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이 용기를 얻었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얘기를 통해서 피해 여성이 혼자 아니라고 느끼고 마음으로 연대하는 효과가 있느냐 봐요.

각별한 우정

제가 독일에 있었지만 2009년과 2012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5년 만에 제가 C 할머니를 수요일 집회 때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만났어요. 제가 한국에 온다는 얘길 안 해서 할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다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편지 하나도 안 보냈냐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전에 나눔의 집을 떠나 독일에 갈 때도 마지막 날 택시를 불러서 광주 시내까지 갔는데요. 택시 타면서 할머니가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할머니가 원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별 노래였던 거 같은데 모르는 노래라서 제가 할머니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C 할머니는 논리적이세요. 할머니는 시사, 정치, 사회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위안소를 안 갔으면 자기는 대학 교수가 됐을 거라고 할머니가 얘길 하셨어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나눔의 집 있을 때 할머니와 같이 도쿄, 오키나와를 다녔었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 만나면 제가 할머니 증언을 통역하는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C 할머니가 일본어 학습 책으로 일본말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통역 잘 못해서 그런 거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럼 왜 일본말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으면 괜찮은데 네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통역하면 잘 못 할 것 같아서공부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일본 사람들 오면 일본 말로 자기 얘기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를 불러서 할머니가 중국에서 살았던 얘기, 가족이 중국에 있는데 만나러 가고 싶다는 얘기, 개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직원들이 밤늦게 까지 일을 할 때 할머니 방에 가면 “컵라면 사 놔드니까 먹어라” 그러세요. 할머니도 과자, 컵라면을 야식으로 먹는 걸 좋아하셨지만 직원들 위해서도 할머니가 사 놓으셨던 거 같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수요일 집회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독일로 오면서 생각했어요. 독일에 할머니를 초대해야겠다. 2013, 2014년에 코리아 협의회 프로젝트에 할머니를 초대해서 독일 각지를 다니면서 증언도 하고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어요. 독일에 할머니가 2주 정도 계셨어요. 할머니가 한국 음식보다 다른 나라 음식을 더 좋아하셨어요. 독일에 왔을 때도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하면 안 가도 된다고 독일 음식으로 많이 드셨어요. 인도 음식, 아랍 음식도 할머니가 맛있다고 하면서 드셨어요. 시설에 계속 있으니까 쌓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독일에 와서 계속 저를 붙잡고 얘기하셨어요. 할머니가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한국으로 가셨죠.

할머니가 독일에 오셨을 때 나눔의 집에서 저에게 문의를 계속 해 왔어요. 다시 나눔의 집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제가 독일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다시 나눔의 집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2018년 여름이었던 거 같아요. 나눔의 집 직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C 할머니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일단 할머니가 회복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번 기회가 할머니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다 했고 나눔의 집에 연락해서 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비자 연장을 안 하고 있다가 2019년 2월에 다시 한국에 왔어요. 나눔의 집에 13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견된 사건, 확인된 사실

나눔의 집에 돌아오기 전부터 사무실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른 직원에게 듣고 알고 있었어요. 다시 나눔의 집 역사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불러서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압적인 자세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저도 사무국장한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공익제보의 처음 배경은 직장 환경 개선이었어요. 예전에 저도 나눔의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소장과 사무국장을 알고 있었어요. 돌아왔는데 소장과 사무국장이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태도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아주 강압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고치면 좋겠다고 얘길 했어요. 사무국장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괜찮다고만 하니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고요. 처음에 직원들을 모아서 얘기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했어요. 운영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주고 직장 환경을 개선만 하면 된다고 얘길 했거든요. 2019년 3월 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운영진에게 기대를 했었죠.

2019년 6월에 사건이 생겼어요. C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아침에 출근 하면서 제가 할머니 방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가거든요. 그날도 방에 갔는데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머니 얼굴을 봤더니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간호사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사무국장한테 얘길 했어요. 사무국장이 저한테 나중에 이상이 발생하면 그때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90살이 넘었고 머리에 피가 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결국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다시 나눔의 집에 오게 된 것도 사무국장이 오라고 한 거고 옛날에도 같이 일을 한 사이거든요. 사무국장은 제가 자기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공익제보 쪽에 서니까 사무국장 입장에서 제가 배신자인 거죠. 2019년 3월에 다른 직원들과 같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에 대한 사무국장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낙상 사건 생겼을 때도 제 얘기를 듣지 않은 거죠. 나중에 저희가 왜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알아봤거든요. 할머니 침대가 오래돼서 기울어져 있었고 할머니가 자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저랑 다른 직원들이 사무국장한테 가서 할머니 침대에 문제가 있다고 안전한 침대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아까워서.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계속 받고 있어요. 2015년 한일 협상을 한 후에 나눔의 집에 들어온 후원금이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근데 왜 침대를 살 수 없나. 얼마나 후원금을 모았는지 회계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88억. 확인해 보니 모았던 후원금은 거의 쓰지 않았고 조금 쓴 것도 거의 생활관 공사비와 공과금으로 쓴 거예요. 할머니들 방에 가면 침대, TV, 옷장 여러 물건들이 많아요. TV 같은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할머니들이 쓰는데 다른 건 거의 할머니 개인 돈으로 산 거예요.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 모으려고 홍보할 때 “할머니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필요 합니다” 얘길 하거든요. 그래놓고 후원금은 할머니한테 쓰지 않는 거죠.

저희가 공익 제보를 준비하면서 2006년도부터 2011년 초까지 제 후임자로 일했던 일본인 직원에서 연락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눔의 집에 문제를 제기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지 제가 알고 싶다고 하니깐 자료를 보내줬어요.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제기 하려고 한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십 년 동안 문제가 계속 방치됐던 거예요. 2010년에 일본인 직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는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도와줄 수 없었어요. 일본 쪽에서도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 후임자는 나눔의 집을 그만뒀어요. 이런 과정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익제보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진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부터 생각하면 이제 3년이 됐어요.

변하지 않은 현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광주시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나눔의 집에 비리 있다고 와서 감사를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감사 한 명이 왔는데 나눔의 집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아, 조계종 하고 행정책임 기관 광주시나 경기도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래전부터 나눔의 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행정 쪽에서도 문제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방치한 거죠.

2020년 5월 피디 수첩을 통해서 나눔의 집이 제보가 됐어요. 두 달 후에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들어와서 3주 동안 나눔의 집을 조사 했어요. 조사결과 나눔의 집 문제가 드러났어요. 나눔의 집을 바꿔야 하고 종교 조직 단독으로 나눔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2020년 6월에 운영진이 바뀌었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운영진이 바뀌면서 공익제보자들을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고소 몇 개 걸러 있거든요. 공익제보자가 7명인데 고소만 40개예요. 경찰한테 연락 올 때마다 가야 하는데 힘들어요.

2020년 8월에 현수막*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 7월 초에 유족 중 두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직원 기숙사에 갑자기 들어와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현 운영진들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유족들이 저를 보면 일본 새끼, 일본 놈 하면서 계속 욕설을 했어요. 경찰이 와서 유족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몸도 밀고 하는 상황을 보고 저에게 나중에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갔어요. 결국 민관 합동조사단이 광주시에 보고를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 사람이 나눔의 집 직원 기숙사에 살면 안 된다는 운영 제한 명령이 내려와서 유족들이 나가게 됐어요. 저를 괴롭히려려고 했는지 어느 날 보니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현수막을 봤을 때 이제 나눔의 집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에 대한 차별도 문제지만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들이 항상 말씀하시길 우리가 당했던 피해는 다음 세대가 겪으면 안 된다, 절대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이걸 확실히 인권 침해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들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활동했지만 인류의 인권을 위해서도 활동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나눔의 집은 인권 지킴의 상징적인 공간

* 나눔의 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으로 나눔의 집 벽에 현수막이 걸렸다.

이 돼야 해요. 그런 공간에서 저런 현수막을 어떻게 걸 수 있는가? 물론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 현수막은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화가 났어요. 공격 대상은 저이지만 당신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할머니들의 활동을 부정한다는 걸 모르냐고 말하고 싶어요.

만남에 필요한 감수성

처음에 나눔의 집에 왔을 때 제가 오는 거에 동의하지 않았던 할머니도 계셨으니까 긴장하고 지냈어요. 저에게 할머니는 너무 대단한 분들로 보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공개 하고 사람들이 오면 만나고 피해를 얘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같이 지내다 보면 할머니들이 인간적인 다양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할머니들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범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머니들이 답답할 거예요. 나눔의 집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모여서 마음까지도 해방시키면서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들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고 나눔의 집도 하나의 가족 형태라고 생각해요.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제가 할머니들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때 보면 할머니들이 귀여워요.

구 운영진이었던 소장과 사무국장은 예전에 같이 일할 때 문제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할머니들에게 가서 소통하려고 했던 면도 있었어요. 제가 2019년 다시 나눔의 집에 왔을 때 본 모습은 소장과 사무국장이 할머니에게 더 이상 안 가는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을 때만 할머니들한테 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다시 나눔의 집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들은 얘기가 있어요. 2018년 가을에 C 할머니가 OO 지역 시장에게 초대를 받았대요. 소장이 자기가 할머니와 같이 가야 한다고 나섰대요. 그날 할머니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거예요. 시장하고 약속했는데 왜 할머니가 못 가느냐고 소장이 화를 냈대요. 할머니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했대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보고 할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바로 수술 들어갔어요. 정치인을 만나야 하니까 할머니를 꼭 데리고 가야 한다. 피해자인 할머니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피해자 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피해자 중심을 생각했다면 피해자 스스로 가고 싶다는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할머니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공익제보를 하면서 나눔의 집에 있던 예전에 찍은 동영상을 다 모았어요. 아주 상징적인 동영상 하나를 찾았어요. 한 할머니가 나눔의 집 운영진에게 불만이 있어서 사무실에 소장을 찾아 간 거예요. 할머니가 소장한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소장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이사 스님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원하는지 얘기를 듣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자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나눔의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대단하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요. 직위가 올라가면서 권한과 권력도 생기잖아요.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가 보다 자신의 직위와 특권이 더 중요해진 거죠. 자기 스스로를 컨트

를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니까 자기를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공익제보자의 길

“참회의 봉사자.” 언론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기사 헤드라인에서 저를 표현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단어를 몰랐어요. 한국인 친구한테 번역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참회의 봉사자가 아니에요. 많지는 않지만 월급 받고 일을 하는데 완전히 저를 미화 해 놓은 거죠. 공익제보 직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외부 사람이 우리를 좋게 평가 해 주는 게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소장과 사무국장처럼 되면 안 된다. 공익제보자 라고 하면 고생 많다, 대단하다며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겐 고맙지만 마음속으론 착각에 빠지지 않게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못 본 척 지나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할머니들의 쉼터로서 후원금을 제대로 마련해서 할머니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곳이에요. 지금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도 그렇지만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못 받고 떠나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억울해요.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들이 최대한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데 못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면서 공익 제보를 시작했어요.


제가 공익제보를 한 다른 이유는 나눔의 집이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나눔의 집에 사람들이 오는 거지만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공적 공간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거죠. 피해생존자의 관점으로 위안부 문제, 여성 인권, 탈식민지 등 여러 과제가 많은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보를 나눔의 집에서 제공하고 해요. 나눔의 집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익 제보를 하기 전과 후의 나눔의 집과 운영진을 생각하면 이걸 못할 것 같아요. 나눔의 집은 피해자 중심이기 보다 역사를 이용해서 조계종의 홍보 기관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공성이 떨어져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위안부 역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원하는 나눔의 집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다음 세대가 제대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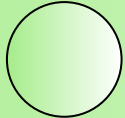
공익 제보를 한 걸 후회는 안 하지만 힘들어요. 공익 제보는 말 그대로 공익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공익 제보를 해 보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한 것 보다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고소도 당하고 운영진에게 괴롭힘을 계속 받고 지난주에도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나눔의 집 소식을 궁금해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가끔 온라인 강의를 해요.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공익 제보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죠. 하하하.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공익 제보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일곱 명이 같

이 공익제보를 해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혼자 했거나 두세 명밖에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만약 독일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독일에서는 제대로 벌써 해결됐을 거예요. 독일은 역사 청산이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채 3년을 가진 않았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정도까지 활동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가 공익 제보자상을 네 다섯 개 받았는데 아마 일본에서는 공익 제보자 상이 없을 거예요. 공익제보라는 단어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공익성을 생각해서 고발을 한다는 뜻으로 공익 제보로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아직까지 일본은 내부 고발이라고 하고 내부 고발에 대해 잘 했다고 지지하는 쪽도 있지만 배신자라는 인식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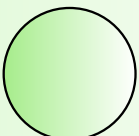
독일에 있을 때 촛불 시위를 취재하러 한국에 왔어요. 한국은 민주주의가 잘 발전하고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보다 훨씬 나은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 공익제보를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현실에서 경험한 민주화의 발전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점에 실망했어요. 저는 한국이 일본과 비교하기보다 민주주의에서 앞선 다른 나라들을 참고 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눔의 집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안부 문제는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발전해 왔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세계사 속의 위안부 문제라는 관점으로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 길에 피해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했어요.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위안부 문제를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나눔의 집을 그만두면 나눔의 집은 현 이사진과 운영진의 손에만 맡겨지게 됩니다. 그럼 나눔의 집은 할머니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세계사와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눔의 집을 홍보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걸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 7명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류광욱 • 변호사, 법무법인 가로수



글쓰기의 어려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공익제보 이후 직원들이 겪었던 어려움, 특히 법률적인 면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공익제보자가 아닌 누군가가 나눔의 집 사태를 설명해야 한다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달동안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구술집을 준비해 주는 분들의 노고에 미안해 어쩔 수 없이 이 글은 내어 놓지만, 그동안 썼던 적나라한 몇 개의 글은 제 파일첩에 공개하지 않고 넣어두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이나 글을 쓰고 뒤엎었던 것은 글이 우울해졌기 때문입니다. 프로페셔널한 글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글이 되고, 설명하는 글이라기보다는 한탄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쓰고 고치고를 여러 번 해 보았지만 결국은 다시 감정적인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새 써 놓은 일기장을 아침에 되어 다시 읽는 느낌처럼 부끄러워졌습니다.

글이 우울해지는 것은 저의 능력부족이나 미성숙한 인격탓만은 아닙니다. 저는 나눔의 집 사태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을 지키는 일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나눔의 집 사태와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쓰는 글은 저의 입장에서는 절망과 실패를 기록하는 일이 됩니다. 절망과 실패를 담담하게 혹은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못하는 일까지 저 자신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 권력은 무대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뽀를 아무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대뽀가 원하는대로 무대뽀가 말하는대로 흘러갔습니다.

40여건의 고소장, 그 성실함의 배경

작년(2021년) 8월 한 방송사가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이 나눔의 집 의혹을 밝혔지만 지금은 40건이 넘는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직후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조계종은 40여건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고소고발은 20여건이며 현재까지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2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1건이 있습니다”라는 반박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반박보도자료를 보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대한불교조계종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파악하고 있고 그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대변인의 입을 통해 인정하였다는 것이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조계종은 사례로 소개된 고소들에 대해 반박하였는데 고소장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고소장에 적힌 내용들은 소설이나 드라마같은 ‘지어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고소장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허구를 지어낼 수 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작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그들의 솜씨가 처음에는 어이없었다가 나중에는 두려워졌습니다. 특히 어떠한 사실관계를 범죄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하나 있으면 이를 조각하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법한 형법조항을 붙여놓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계종이 그 ‘지어낸 이야기’를 매우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성실함’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개의 ‘스토리’

방송사가 이야기한 고소건수는 40여건입니다. 그리고 조계종은 20여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 중 가장 고소를 많이 당한 사람은 김대월입니다. 김대월이 고소를 당한 건수는 적게는 11건 많게는 20건이 넘습니다. 11건이나 20건이라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이라고 날아든 사건만을 기준으로 하자면 11건이 됩니다. 그러나 고소가 불기소처분이 되어도 그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고-이를 항고라고 합니다- 다시 조사해서 그 결과가 변하지 않아도 그래도 다시 한 번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이를 재항고라고 합니다. 항고사건도 재항고사건도 모두 형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한 건의 고소장이 날아들었다고 해서 하나의 사건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월에 대한 고소는 11건이라고도 20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월 다음으로 많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 허정아와 전순남으로 각 8건의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원종선 5건, 조성현·야지마 츠카사가 3건이고 가장 적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이우경으로 2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40건이라는 것은 각자 고소장을 받은 횟수만을 더한 것입니다. 만약 항고-재항고/이의신청 등의 사건을 모두 사건수로 계산하자면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두 배는 족히 될 것입니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여러 명에 대한 고소장에서 반복되기도 하였고, 또는 그 스토리가 고소장마다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월이 소리를 지르고 욕박질러다는 스토리는 어떤 사건에서는 헐박이 되었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감금이 되었습니다. 김대월이 소리를 지르고 욕박질러 업무방해가 된 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소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의 수는 아마 20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계종이 “20여건”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고소의 바탕이 된 스토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복되는 고소에 지쳐있던 저는 조계종이 ‘법인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여건이다’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20여 건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었구나...

지겹게 반복되는 고소 중에는 직원들의 점심값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소장에서 점심값을 소재로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순남은 시설장을 협박했습니다. 허정아는 결제서류를 위조하였고 나눔의 집 카드를 비싼 음식을 사먹는 데에 횡령했습니다. 이걸 “점심값”이라는 스토리라고 한다면, “복싱선수” “일본사람” “의료카드” “집령군”이라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일본사람”이라는 스토리에 등장하는 야지마 츠카시는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여성들을 유린한 바로 그 일본군에 다름 아닙니다.

하나의 스토리는 고소에만 활용된 것이 아닙니다. “점심값”이라는 스토리의 주인공인 전순남은 고용노동청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일본사람”이라는 스토리의 주인공인 야지마 츠카시는 “감히 일본놈이…”라는 스토리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그리고 경기도에까지 진정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토리는 만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퍼트리는 과정에서도 매우 꼼꼼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궁금한 분은 법보신문, 불교신문, 불교방송에 점심값(점심식대) 혹은 일본인 직원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라는 검색어만 한 번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건의 건수가 왜 20여건이 아니라 40여건인지를 이렇게나 설명해야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다고 하고서는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건수가 40여건이 아니라 20여건이라고 칩시다. 40여건과 20여건은 다릅니까? 40여건이 사실이라면 조계종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20여건이 사실이라면 조계종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40여건이 사실이라면 공익제보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20여건이 사실이라면 공익제보자들이 가해자가 되나요?

조계종은 반박보도자료에서 20여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 2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1건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17건 이상의 고소는 의미 없이 남발했다는 것을 조계종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들이 저는 매우 이상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좀 더 단순하게, “20건을 고소했고 그 중 단 세건만 수사가 진행중이고 17건은 불기소되었습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무고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가끔 뻔뻔한 주장에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게 굴어 상대방의 말문을 막은 것을 두고 마치 자신이 대단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0여건을 넘게 고소했는데 3건에서 혐의가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 결과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할 것인가요? 혐의가 없다고 할 것인가요? 단 한 건이라도 자신의 근로자를 무고한 것이라면 그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행여 그 수많은 고소가 직원들을 내쫓고 공익제보를 무마하려는 의도였다면, 그런 행동은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0여건이든 20여건이든 어쨌든 대부분 불기소가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정교하고 꾸준한 주장은 결코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은 밝고 건강한 기운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불기소가 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성취로 생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날아드는 고소장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이 날아들 때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를 밝혀야 하는 일은 온전히 공익제보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단언컨대 그 일에 지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스토리를 만들어 낸 자나 고소를 남발한 자가 아닌 고소를 당한 공익제보자들이 지쳐버렸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고소는 거짓말에서 시작합니다

나눔의 집 안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편이 아닌 직원이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 이우경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왜 어깨를 밀었냐? 누가 밀었다고 그러냐? 뭐 그런 실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랑이는 어이없게 끝나고 말았는데 실랑이 후에 한 사람이 나눔의 집을 나가 마을 입구까지 가서 변호사를 만나고 들어왔습니다(운 좋게 목격자가 있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를 만나고 다시 나눔의 집으로 돌아 와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직원들(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결정이 있기 전입니다)이 ‘우리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할머니와 나를 감금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20여명의 경찰이 나눔의 집으로 출동했고 그 신고한 직원은 마치 두려움에 떨었다는 듯이 담요를 덮어쓰고 부들부들거리며 경찰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낯세는 실랑이 중에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서 있고 일부는 소파에 앉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뭐 그리 대단한 실랑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랑이 중에 소파에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김대월의 앞으로 나가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은 꿇은 장소는 정확하게 CCTV가 비추는 곳이었습니다. 전후맥락이 전혀 없는 돌발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김대월의 앞에 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날 CCTV에 찍힌 그 모습은 모든 언론사에 배포되었고 여러 언론사가 보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 건의 고소의 빌미가 되었음은 여러분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 중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종선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게는 돈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종선은 20년을 나눔의 집에서 근무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 해드리려고 할 때마다 “돈이 없다”는 말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가 부족할 때마다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쌈짓돈에서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쌈짓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십사 여성가족부며 “위안부”지원단체에 주야장천 전화했습니다. 원종선이 애써서 조금이나마 지원이 늘어나게 되자 나눔의 집은 아예 “필요하면 당신이 알아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언론인터뷰 이후 나눔의 집은 원종선을 고소했습니다. 원종선에게 날아든 고소장에는 원종선이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고한 말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에게 12억 원이나 썼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할머니들에게 쓴 12억 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12억 원은 원종선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서 받아 온 지원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종선이 받아 온 지원금을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을 위해 쓴 돈이라고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주차료로 사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원종선이 원종선의 차로 모시고 갔을 때 주차료를 쓴 것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하다니 거짓말이야’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인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은 반복해서 원종선에게 물었습니다. “나눔의 집은 12억 원이나 썼는데 왜 안 썼다고 하셨어요?” 원종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소박한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대월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김대월이 나눔의 집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나면 어김없이 “짱욕을 했다” “완력으로 제압하면서 밀어 부쳤다”며 폭행, 특수협박, 모욕의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먹는 게 맛이 없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식판에는 인스턴트 음식과 전날의 음식이 테워져 나와 있었습니다. 김대월이 “왜 할머니에게 인스턴트 음식만 드리냐? 할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기는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대월에게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김대월이 “여러 명을 우르르 끌고 식당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지랄하고 자빠졌네, 꼴사납네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며 조리사를 조롱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특수협박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서 앞에서 말한 감금사건도 언급되었습니다.

김대월은 프로복싱선수자격이 있습니다. 아마도 힘겨운 단련을 꾸준히 해서 따낸 자격일 것입니다. 김대월에 대한 고소장에는 “프로복싱선수 김대월”이 항상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한 인간이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것이죠. 그의 힘겨운 단련의 시간이 빌런을 만들어 내는 소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실, 김대월이 할머니 식사에 대해 따지고 있는 동안에도 이상한 일은 있었습니다. 김대월이 이야기를 하고 나가려는데 상대방이 김대월을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들이밀었습니다. 김대월이

돌아 나가려고 하자 김대월의 방향으로 급히 돌아와 다시 가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대월에게 “건드리기만 해봐 성폭행이야”라고 했습니다. 김대월이 성폭행범으로 고소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사실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이렇게 하면 김대월을 성범죄로 엮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릎을 꿇은 사건에서 그 사람이 마을 밖으로 나가 만나고 온 변호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조언하였던 것일까요? 원종선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엮기 위해서는 돈을 쓴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은, 김대월을 성폭행범으로 엮을 수는 없겠지만 “특수폭행”으로 엮을 수는 있다는 판단은 누가 내린 것일까요?

김대월에 대한 특수폭행의 고소장에는 공범으로 조성현과 야지마 츠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중 남자직원 3명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에 참여해 보면 그들이 공익제보자들에게 고소장만 날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언제나 증인이 있었습니다. 김대월이 욕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고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며, 복싱선수 김대월에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증인들이 있는데 대질하시겠어요?”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인스턴트 식사”사건의 조사 중에도 경찰은 물었습니다.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증인들이 모두 그렇다고 진술하는데도 피의자는 부정하실 건가요?”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증거와 증인이 있었습니다

전운영진이 허정아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문서위조에 첨부된 서류는 현운영진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현 운영진이 원종선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운영진은 현운영진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허정아는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고소의 증거에는 허정아가 입사할 당시의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정아는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횡령의 내역으로 나눔의 집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내역이 아주 잘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시스템의 내역은 다름 아닌 허정아가 작성하여 올린 보고서와 영수증을 전산처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허정아가 올린 보고서와 영수증은 모두 버리고 전산처리한 내역만 들이밀면서 허정아가 횡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정아가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쓴 것인지 그들은 이미 보고서와 영

수증을 통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고 이 내역을 인정하고 전산등록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허정아를 고소로 엮기 위해 그들도 고민이 깊었을 듯합니다.

그들은 증거와 증인을 이리도 열심히 찾아 제출하는 반면 공익제보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말한 업무시스템에 당시 허정아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허정아에게도 접근권한이 있었지만 그 권한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나눔의 집이 작성한 온갖 서류들이 보관되어있는 방이 있습니다. 자료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현운영진은 그 입구에 “개방금지”를 붙여 두었습니다. “개방금지”를 떼고 들어가지 않는 한 자료방에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개방금지”를 떼었다면 백발백중 문서손괴의 고소장이 날아들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분명해 보였습니다

원종선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조사를 받은 사건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할머니들이 구입한 공진단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공진단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물어볼까? 변호인인 저로서도 갑자기 수사의 방향이 바뀐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원종선에게 반복된 질문의 요지는 “당신이 뭔데 할머니들에게 공진단을 드리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있는 며칠 뒤 할머니의 주치의 중 한 사람이 원종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공진단이 문제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 운영진이 전화를 걸어 공진단은 합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진술서를 오후 2시까지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원종선에게 공진단에 대한 질문을 퍼붓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원종선의 조사는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운영진은 어떻게 그날 오후 3시에 경찰이 공진단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경찰이 조사에 필요하니 진술서를 받아 오라고 했던 것일까요? 운영진이 이런 진술서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2시와 3시. 그만큼 그들은 가까워 보였습니다.

김대월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김대월의 혐의는 출입구에 붙어 있던 종이를 떼어냈다는 혐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은 굳이 변호인 입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월이 떼어 낸 종이에 적혀 있던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문서손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종이 한 장 떼어냈다고 해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손괴죄의 수사에 변호인이 입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날 김대월이 조사를 받는 곳에 제가 입회했습니다. 강력반 형사 3명이 순서를 바꾸어 들어왔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던 내용이 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지 제가 설명하려 하자 형사는 “조용히 하시죠”“이러시면 조사방해로 나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제 설명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경찰은 조서에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성을 높여 다툰 후 조서에 직접 제가 기록했습니다.

문서손괴죄를 두고 경찰과 비장한 싸움을 하고 나온 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괴로웠습니다. 문서손괴죄에 입회하는 변호사도 드문 일이지만 문서손괴죄에 경찰이 그렇게 결연하게 나서는 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각오를 한 듯해 보였습니다.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서는 어떤 증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더라며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냐고 따져 물으니 “에이, 변호사님 다 뻔한거죠”라고 했습니다. 공익제보자들과 공익제보자들의 변호인인 제가 모르는 수사진행사항이 버젓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 수사결과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도 전에 언론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고소의 목적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눔의집 그리고 공익제보자들과 관련된 몇 개의 행정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사건들에서 나눔의집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나눔의집 이사나 운영진이 아니다. 공익제보를 했다고 말하는 저들 저 직원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행정사건에서 전순남에 대해서 “2020. 3. 1. 안00에게 지금부터 정년까지 자신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찾아왔다. (중략) 오늘 당장 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안00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전순남은 안00을 협박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게 하고, 법인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카드로 수 천 만원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00을 협박했다는 것도(강요죄), 법인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업무방해), 법인카드를 횡령했다는 것도(횡령)도 모두 고소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눔의 집은 전순남이 횡령을 저지르고 있어서 이를 막지 않으면 안된다고 읍소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사건에서도 “나눔의 집이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수사기관 수사 중으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우선 사태가 시급하니 우리가 다시 나눔의 집에 복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주장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눔의 집 사태의 책임은 운영진이나 이사들에게 있지 않다. 공익제보자들이 이른바 공익제보라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공익제보자라는 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내부고발을 한 것이다. 봐라! 여기에 이렇게 고소장이 많지 않은가! 여기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은가!

공익제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공익제보자들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나눔의 집 시설장이 비가 오는 흙바닥에 할머니들 물건을 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자, 시설장은 그건 역사관 김대월이 할 일이다. 김대월이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아 모두를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은 원종선책임이다. 원종선이 제대로 하지 않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회계는 복식부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눔의 집의 회계가 지금까지 단식부기로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자 나눔의 집은 그건 회계를 담당하는 전순남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점심값”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심값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이 억울해서 한 복지전문가에게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 복지전문가는 제게 “카드를 맘대로 쓰면 안되죠!”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복지전문가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나눔의 집 직원들이 카드를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눔의 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요?

제가 한참을 설명하자 그 복지전문가는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윤미향을 도와주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윤미향이라니... 그 복지전문가는 직원들이 윤미향과 정의연의 사주를 받아 나눔의 집을 먹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요? 라고 따져 물을 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원들이 윤미향과 정의연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직원들이 시민단체들의 사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문 속 직원들의 뒤에는 정의연이며 온갖 시민단체를 있다고 하는데, 현실의 직원들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에도 앞에도 그리고 옆에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에 불과했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떠나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음 아픈 일을 여기서 털어놓고 싶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끊임없이 고소당하고 누구도 우리 편에 서 있지 않고 고스란히 이 싸움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즈음부터 저는 수 없이 공익제보자들을 질책했습니다.

김대월에게 할머니 식사를 왜 부실하다고 따지느냐. 그냥 뇌되라. 괜히 따져서 특수협박이라고 고소당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나갈 때마다 운영진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일이 잦아져도 공익제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할머니들과 외출하고 싶어했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나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너무 답답해하신다 말이에요”라고 하는 조성현에게 저는 “할

머니들의 외출여부는 어찌 되었던 운영진이 판단할 문제이니 운영진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할머니는 불교방송 인터뷰 외에는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야지마 츠카사만 보면 욕을 퍼부으며 덤벼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놈 XX”“꺼져라” 멀리서 마주치기만 해도 욕을 퍼부으며 덤벼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지마 츠카사가 자신을 때려서 전주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는 야지마 츠카사에서 무조건 피하라고 했습니다. 도망가는 야지마 츠카사 뒤로 “아예 꺼져라 이 XX야”“더러운 XX”“왜 도망가냐? 이 XX야”“꼴았냐?”고 소리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공익제보자들 스스로 조금 조심하면 고소당하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일단 참고, 욕을 들어도 고개를 돌리고, 주먹이 날아와도 일단은 피하고, 맞든 맞지 않든 운영진의 지시를 따르면 고소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든 무엇이든 아예 고소거리를 주지 않았으면 되는데 고소거리를 던지는 것은 공익제보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소하는 데만 힘을 쏟으니 정작 나눔의 집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눔의 집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당하는 괴롭힘은 조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익제보자들은 그 밝고 건강한 기운을 잃지 않으려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나눔의 집의 문제를 들으려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 가서든 밝고 건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건강한 에너지로 인해 더 미움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처럼 조금 불쌍하게 보이면 안될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밝다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완벽하게 틀린 것이었습니다. 고소에 시달린 지 2년이 지나오는 동안 고소와 괴롭힘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할머니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갑자기 하지 않던 일을 하라고 시켜도 순응하였고, 야금야금 업무를 빼앗아 가도 참았습니다. 김대월을 아끼는 할머니가 “대월이 어딴냐?”고 찾으셔도 김대월은 할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공익제보자들은 그 밝고 건강하던 에너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공익제보자들에게 “피해자답지 않다”고 했던 것이 저주가 되어 그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공익제보자들 중 누군가에게 부당한 지시가 내려질 때마다 김대월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방어해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월이 그렇게 많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월에게 더 이상 나서서 싸우지 마라 제가 말했습니다. 김대월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웅크리고 있으려 애썼습니다. 김대월은 답답함에, 다른 직원들은 더 이상 나서주는 이 없다는 외로움에 피폐해졌습니다.

김대월이 이렇게 웅크리게 된 것에는, 공익제보자들의 에너지가 모두 사라진 것에는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만 했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의 퇴사

하나들 나눔의 집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공익제보자도 있지만, 더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말에는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습니다.

고소들이 모두 불기소가 나서인지, 아니면 공익제보자들의 패배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오히려 요즘에서야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애썼다 공익제보자들의 등을 토닥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은 더 이상 응원에 힘을 내지 못합니다. 고개숙여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친구들에게

원종선, 야지마 츠카사, 전순남, 허정아, 조성현, 이우경 그리고 김대월.

저는 이 글에서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부르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공익제보자라는 단어에 이미 가치평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사실을 기록하는 이 글에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욕하는 불교언론에서 언제나 이들을 “자칭 공익제보자 000”라며 비꼬는 것도 듣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의 모든 이유를 떠나 저에게 이 7명은 더 이상 그저 ‘공익제보자’가 아닙니다.

소중한 친구들, 미안합니다. 🍀

나눔의 집, 시설화된 삶을 말하다

아정 · 독립연구활동가

프롤로그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서로의 공통 경험을 나누고 의지하며 적절한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형태로 인식되어왔다. 이른바 '양심적'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때는 "나눔의집에 다녀왔다"는 인사말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역사적 성찰을 드러내는 표현처럼 회자될 만큼 그 위상은 상징적이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일곱 명의 직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눔의집이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그들의 공익제보가 같은 해 5월에 PD수첩에서 <나눔의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이로써 나눔의집은 거주인¹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며 살아가는 거처로서 제대로 기능해 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매달 수천 명의 후원자들이 보내오는 후원금이 정작 후원 대상인 거주인들에게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들은 관할지자체인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나눔의집의 운영 행태를 신고하고, 경찰에 운영진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했다.

이러한 사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나눔의집 역사관 연구원이었던 무라야마 잇페이(村山 一兵)는 이번 사태를 두고 "터질게 터졌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재직하던 동안에도 거주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고, 후원금 출납도 불투명했다며 당시 운영진에게 개선 요구서를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운영진과의 갈등 끝에 해고되었다.²

1992년 조계종의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집은 시설, 법인, 역사관으로 나뉘어 있다. 무료노인양로시설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그리고 나눔의집 역사관. '시설'과 '법인'의 이름이 같다 보니, 대부분의 후원자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쓰이길 바라며 보낸 후원금이 그러한 취지에 맞게 쓰이지 못하고 법인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공익제보자들에 따르면, 나눔의집 시설은 법인이 채용한 두 명의 운영진(안신권 소장, 김정숙 사무국장)에 의해 2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금해 왔지만, 후원금은 줄곧 '시설'이 아닌 '법인'에 귀속되어 왔다고 한다. 나눔의집 문제는 이처럼 거주인들의 일상과 마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조력해왔던 직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전사(前史)가 시사하는 출구와 한계

공익제보자들의 구술은 다산인권센터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기획하고, 인권기록센터 사이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활동가들이 듣고 쓴 결과물이다. '발바닥행동'은 사회복지

1 이 글에서는 직접 인용과 맥락에 따른 고려를 제외하고는 나눔의집에서 지내는 할머니들을 '위안부'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거주인'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위안부' 피해자로만 존재해야 했던, 관계 맺어야 했던, 증언해야 했던 혹은 그렇게만 인식되어온 시간들에 대한 이의제기로, 그리고 나눔의집이 다름 아닌 '시설화된'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혀둔다.

2 「나눔의집 해고당한 日 연구원 인터뷰 "터질게 터졌다"」, 『프레시안』2022/05/2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217222847403>).

법인의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그와 더불어 탈시설하는 이들을 지원해왔다. 이번 나눔의집 사태에 대한 공익제보자들의 말을 '탈시설운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담아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전 작업들을 통해 시설폐지와 시설폐쇄라는 장애인 탈시설운동의 전사(前史)가 보여주는 가능성과 함께, 나눔의집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왜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한계를 짚어낼 수 있는 참조점을 발견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시설'폐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시설폐지를 결의하여 운영을 종료하고 폐지 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향유의집도 민간 주도 하에 거주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시설을 폐지한 사례에 속한다. 2008년, 석암재단 산하 석암베네스다요양원의 거주인과 직원들이 재단의 비리와 거주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폭로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그 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개입과 연대를 통해 재단 운영진이 완전히 교체되면서 석암재단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다시 태어났고, 향유의 집(구 석암베네스다요양원) 폐지를 시작으로 나머지 거주시설들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시설 '폐쇄'는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거주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과 같은 불법 혹은 부당 행위가 확인될 때,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고 시설 운영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³ 조계종이 스스로 나눔의집을 '폐지'할 전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설 '폐쇄'는 시민단체와 연대한 공익제보자들에게 희박한 가능성이나마 제시해 줄 수 있다.

실제로 공익제보 이후 경기도가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집 관련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도 이를 거주인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 광주시는 2020년 10월, 정관 위반을 이유로 나눔의집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고, 경기도도 같은 해 12월 나눔의집 이사회 11명 중 법인 이사인 월주 스님 등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승려이사 등은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의 결정없이 사업이나 예산을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이사진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공익제보 이후 외부에서 영입된 임시 이사진이 문제를 타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총 11명의 나눔의집 이사들 중 5명의 이사가 해임 명령을 받고 3명이 선임 무효가 되어, 총 8명이 이사진에서 해임되었다. 소송대리인 류광옥 변호사⁴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객관적인 입장의 임시 이사진을 투입하는 척하면서 조계종 배경의 이사진 3명을 투입했다고 한다. 기존 이사진 3명과 조계종 배경의 임시 이사 3명, 그 외의 임시 이사 5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진은 숫자 상으로 6:5였고, 이런 비율로는 아무리 새로 투입된 임시 이사 5명이 고군분투한다 한들 명백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

3 시설폐지와 시설폐쇄, 향유의집 사례에 관해서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x인권기록센터 사이, 『집으로 가는, 길-시설사회를 멈추다』, 오월의봄, 2022년, 7쪽, 42쪽.

4 이 글에서 류광옥 변호사를 인용한 부분은 2022년 5월 10일의 면담, 그리고 5월 25일 국제법x위안부 세미나팀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청취한 내용이며, 본인의 검토를 마친 것임을 밝혀 둔다.

었다.

임시 이사들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람을 임원의 5분의 1로 제한할 것, 나눔의집을 현행의 무료 양로원 형태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로 전환할 것, 후원금 손해 구상권 청구 등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으나 부결되었고, 이들 5명은 선임된 지 1년여 만인 2022년 3월에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될 수 없어 임시 이사를 사퇴한다. 주인이어야 할 피해 할머니들을 수용자로 대상화하고 있는 등 운영진의 낙후된 인식과 행동이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⁵이라고 지적했다.

임시 이사진 5명이 모두 사임한 자리에는 전원 조계종 인사들이 충원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설 '폐쇄'라는 탈시설운동의 참조점은 힘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거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장애인 탈시설 운동과는 달리, 초고령자인 나눔의집 거주인 4명 모두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던 석암재단 비리 관련 탈시설 운동은 거주 당사자 조직의 힘이 가장 큰 성공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같은 이야기도 직원들이 하는 것과 당사자들이 하는 건 많이 다르다. 당사자들이 움직였을 때 사회적 울림은 바깥의 시민사회의 연대로 이어졌고, 이들이 이사회 안건으로 들어가 비리 세력을 조금씩 밀어내는 지난한 투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마침 시설 바깥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던 탈시설 운동의 성과들을 시설 내부로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맞물리면서 시설 '폐지'라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⁶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광주시, 관련 단체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시민단체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들지 않았다. 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각종 고소·고발로 공익제보자와 소송대리인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우리'를 이룰 수 있을까. 나눔의집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을까.

‘폭로’를 넘어 어떻게 ‘문제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

시설폐지와 시설폐쇄 모두 참조점으로서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탈시설은 시설을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서의 삶이 어떠했고, 고립된 삶을 강제한 주체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었는가”를 사회와 국가에 묻고, 시설과 시설이 아닌 곳을 그토록 분리해 온 폭력적인 가치에 개입하는 과정”⁷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전사(前史)에서 실천적 사유를 빌려온다면, 즉 시설에서의 삶이 어떠했고, 고립된 삶을 강제한 주체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었는가 라는 위의 세 가지 질문에 천착한

5 「“나눔의집 정상화되지 않아” 임시이사 5명 1년만에 사퇴」, 『한국일보』 2022/03/1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217222847403>).

6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x인권기록센터 사이, 앞의 책, 82~83쪽.

7 김순남, 「강제된 장소, 강제된 관계를 질문하는 탈시설 운동」, 『시설사회』 44쪽.

다면, 공익제보자들이 던진 물음에 대한 응답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당사자 거주인들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소진된 공익제보자들의 곁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받아 안아야 할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이 '시설화'되었다는 현실이다. '시설화'는 지배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 분리하여 권리와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불능화/무력화'된 존재로 만들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⁸

나눔의집이 '시설화된'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나눔의집 거주자들이 시설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갖지 못하는 취약함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일상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거나 통제당함으로써 고립되어 왔다는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문제화될 수 있다.

나눔의집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거주인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공익제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이번 사태는 거주인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나 공익제보자들의 개인적인 권리 구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설화된 장소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위안부 '피해자'로서 증언을 강요당하고 일상이 전시되는 거주인들의 강제된 삶에 대한 이의제기이자 시설 노동자들의 취약성과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사안을 유기적으로 때로는 분리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로 조금 더 확장해야 한다.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각 사안을 분리해서 대처해야 하지만, 얽혀 있는 여러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소·고발을 당한 공익제보자들이 결국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미 지쳤고, 거주인들에 대한 처우 또한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익제보자들이 앞에 나서서 싸우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그들이 남긴 말의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론화할 것인가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신다'는 표현은 낯설지 않다. '모신다'는 것은 어떠한 돌봄의 형식과 내용을 갖는 것일까? 나눔의집은 거주인들에게 물리적으로 간혀 지내는 삶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위안부' 피해자라는 특정 시기의 특정 경험과 정체성에 가두었다. 공간의 감옥뿐 아니라, 시간의 감옥을 강제한 혐의가 있다는 얘기다. 나눔의집 거주인들은 노년의 삶을 자신이 기획하고 구성하거나, 시설 바깥의 삶을 상상하고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

집단 거주- 소비되는 증언, 전시되는 일상

○○○할머니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살아계셨을 때 아무와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가슴에 깊이 담아둔 비밀이 있으신데, 할머니가 혹시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입 밖에 낼 까 봐 아예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눔의집에서는 할머니가 숨기고 싶어했던 이야기를 세상에 다 드러냈어요.

8 조미경,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 간 연대를 기대하며」, 『시설사회』, 285쪽.

202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나눔의집 전임 운영진이 ‘위안부’ 피해자 000의 신상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명과 피해 경험을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던 피해자의 이름 등 정보를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한 운영진의 행위도 인권침해로 봤다. 해당 피해자의 사진, 입소 시기, 출생연도를 홈페이지와 발간물, 역사관 게시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실명을 언급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거주인들은 ‘위안부’ 피해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혹은 피해를 증언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다. 이것은 나눔의집 운영 행태만의 문제일까. 30여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눔의집을 찾았다. 방문객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비통한 표정으로 ‘위안부’ 피해경험을 듣는다. 이러한 ‘듣기’의 방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나눔의집을 찾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조계종 측의 운영 비리를 폭로하고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 문제를 편의적으로 소비해 온 우리 사회의 책임 또한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 나눔의집 설립 당시 60대였던 거주인들은 이제 100세를 바라본다. 살아남은 이들은 아직도 누가 찾아올 때마다 1층 거실로 내려가 기념사진을 찍는다/찍힌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는가.

공익제보자들에 따르면 나눔의집이 본격적으로 시설화된 시점, 즉 거주자들이 나눔의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점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2015년 합의) 이후 막대한 후원금이 나눔의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한다. 그때부터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이 ‘몇 명인지’가 중요해졌다. 무료노인양로시설의 지원금은 ‘인원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고, 2015년 합의 이후 지원금이 매달 2~3억씩 모이면서, 거주자들을 붙잡아 두는 것이 나눔의집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무료양로시설은 거동이 가능하고 수입이 없는 할머니가 오시는 곳인데, 여기는 다 수입이 있고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들이 계세요. 요양시설에 계셔야 될 분들이 양로시설에 있는 거죠. ... 나눔의집 쪽에서는 무료양로시설로 등록하면 매달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오니까 그게 좋았고, 광주시 입장에서 딱히 아무도 문제 안 삼고 지역 홍보가 되니까 서로 윈윈한 거죠.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할머니는 없었죠”.(김대월)

나눔의집 ‘바깥’에서 나눔의집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려는 연대체는 당시에도 드물었고 지금도 그렇다.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고발이 터져 나왔을 때, 여론의 호응은 잠깐 뜨거웠다. 2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광주시, 관련 ‘위안부’ 단체, 여성가족부,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에서 멀찍이 물러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조계종의 언론 플레이나 선동만이 그 이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나눔의집에 찾아간 이들이 증언을 듣고 흘린 눈물은 무엇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었을까. 피해자로서만 존재

할 수 있었던 시간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증언, 외출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집단 거주 등 ‘시설화’ 되어 버린 삶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여 알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면 왜 이를 문제삼지 않았나.

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강요된 집단 거주와 졸속 행정, 그리고 형편없는 돌봄 환경, 강요된 증언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그리고 시민사회는 모두 ‘방조’ 혹은 ‘부작위’의 책임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설과 시설화된 삶은 사회의 전략적인 무관심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기 방문객들이 많이 오면 하루에 열 팀씩도 오거든요, 그 방문객들을 맞이해서 ‘저는 18살 때 위안부로 끌려갔던 누구입니다’ 이 말을 하루에 열 번씩 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대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학대인지”. (김대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의 자리를 누가, 어떻게 할당해 왔는가. 지금 90대 후반인 거주인들은 1992년 설립 당시 대부분 60대였다. 과연 거주인들은 30여 년 동안 나눔의집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안부’ 경험을 증언하는 삶을 바랐을까. 일상의 공간과 나란히 세워진 역사관이 말해 주는 것은 어쩌면 이들의 말과 삶이 나란히 전시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아닐까.

현재 나눔의집 거주인들은 네 명이다. 치매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 거주인은 코로나 상황에서 외출을 못하게 되자 증상이 악화되었다. 이는 함께 사는 거주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종종 치매에 해당된다면 장기입원이나 치료를 모색해야 하지만, 나눔의집 운영진은 여전히 정치인이 올 때마다 거주인들에게 옷을 차려 입히고 함께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동원 행태를 보였다.

간헐 사는 삶을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시설에 보낸다”는 말,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되어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는 난민신청자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 나눔의집 거주인들에게 “증언 안 할 거면 나가라”는 말은 선택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취약성을 불모로 삼은 통제와 지배의 언어이다. 이들은 시설에 보내지지 않기 위해,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 고분고분 순응해야 한다. 이렇듯 장애인, 난민신청자, ‘위안부’ 피해자(그밖에도 무수한 존재들이)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수용’당해 온 내력을 공유한다. 이 사회가 시설화된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때, 누가 어떤 ‘보호’를 하려는 것인지 문제삼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정상화’ 너머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히 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봉사와 헌신’이 아닌 ‘노동’의 문제로 말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눔의집 사태를 마주했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노조의 부재(不在)였다. 구술자 대부분이 자신의 일을 ‘봉사와 헌신’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노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노동이, 특히 돌봄노동이 ‘봉사와 헌신’으로 말해질 때마다 (직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나 착취적인 노동환경은 가려지기 쉽다. 이렇듯 나눔의집에서 ‘노동’과 ‘헌신’은 기묘한 긴장관계에 있다.

사실 노조가입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에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나눔의집은 역사관만 남고 폐쇄되거나 거주인들의 탈시설 가능성도 있어 보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들 사이에서 노조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조가입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된 시점은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업무배제가 이어지면서 심각성을 감지했을 때였다. 그러나 직원들은 노조가입으로 자신들이 구제받는다 하더라도 나눔의집이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에서 노조가입을 했다가 거의 탈퇴했다고 한다. 결국 시설에서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조계종이라는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좌절과 고립 그리고 무력감은 비난이 아닌 연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류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장기적으로 보고 더 많은 연대체를 만들어야 했다는 후회가 남는다, 나눔의집 문제가 그 자체로 워낙 공론화되기 쉬운 이슈였고 많은 이들이 공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건 자만이었던 것 같다,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것도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광주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직책은 요양보호사와 위생원이다. 역사관 업무를 주로 했던 한 직원은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고 입사했지만, 자신이 청소와 빨래 등을 하는 위생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로 법인이나 역사관 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2018년 3월에 저 이전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던 분이 퇴사를 하면서 사무국장이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제가 요양보호사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위생원으로 등록하면 어떻겠냐고. 대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 따는 거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그렇게 말하니깐 그러겠다고 하고 자격증을 땀어요. 그리고 제가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요양보호사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 처음에는 이런 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좋은 곳이라고 믿었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더라도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사무국장이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허정아).

“입사할 때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했고 그렇게 알고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 허위공고였어요. 나중에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저보고 위생원이라는 거예요. 따져 물었더니 계약서상 위생원일 뿐 나중에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받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회복지사 급여보다 위생원의 그것이 훨씬 낮아요. 솔직히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니어서 그냥 계약했어요...저만 그렇게 아니었어요.”(조성현)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또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되어도 위압적인 상하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서명한 직원들도 있다. 나눔의집 노동자들 개개인이 이러한 계약상의 부당함이나 노동환경 혹은 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기에 더더욱 노조가 필요했던 것 아닐까. 고소·고발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을 공익제보자들을 향해 나눔의집은 ‘노동’의 현장임에도 ‘노동자’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는 다소 주저함이 있지만, 이는 허정아의 말처럼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과는 다른 층위에 문제를 밝혀둔다.

“공익제보자인 내가 어떻게 비취지는지가 공익제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공익제보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고...”(허정아)

국가의 무능과 사회의 피로감 속에서 마주한 나눔의집 문제

“묵인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섰는데 해결된 것이 없이 결국 어머니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를 가장 많이 괴롭혀요. 무엇보다 나눔의집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많이 없었어요. ...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는데 만 명이 안 됐어요.”(원종선)

시민사회의 반응이 금방 시들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나눔의집 ‘문제’를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에 직결된 물음이기도 하다. 직원들의 공익제보로 피디수첩에서 나눔의집 관련 보도를 했던 것이 2020년 5월 19일이었는데, 그보다 먼저 5월 7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 등을 지적하는 이용수의 기자회견으로 이른바 ‘정의연 사태’가 불거졌다. 나눔의집 문제는 정의연 문제와 분리되어 다뤄지지 못하고 애매하게 묻혀버린 사정이 있다. 나눔의집 앞에서 “윤미향 물러가라”는 피켓팅을 하는 시민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전해졌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정대협, 정의연을 거치면서 수많은 관계자들이 증언을 들으려는 이들과 함께 나눔의집을 드나들기도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해외로 ‘모시고’ 나가 증언의 장에 서도록 조력한 운동의 역사가 있다. 때문에 나눔의집과 정의연은 운영 주체가 완전히 달라도, 시민들에게 한 몸처럼 인식되어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의연 사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사회적 분위기로 생겨났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맥락들 중 하나다. 나눔의집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떠올랐던 공분은 이용수, 윤미향, 정의연으로 이어지는 ‘위안부’ 관련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일련의 파잉 보도 속에서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피로감 속에서 사그러들었던 측면이 있다. 정의연은 이번 나눔의집 사태를 마주하고 어떤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거주인들에게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여가부는 나눔의집이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눔의집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켜야할 법률 규정들만 잘 지킨다면 여가부에서도 강제적 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가부가 나눔의집에 지원해온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감독할 권한과 의무는 다름아닌 여가부에게 있다.

예를 들어, 여가부에서 나눔의집 거주인들에게 지원하는 의료카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예전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카드를 모두 모아서 거주인의 병원비로 쓰거나 필요한 약을 사드렸는데,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제 의료카드는 거주인들의 가족이 사용하고 있고 여가부도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이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여가부의 행태는 현장에 달려와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여가부에 입장을 물으면 나눔의집에서 할머니들을 때렸는지 혹은 여가부 지원금을 나눔의집이 횡령했는지 정도의 질문이 되돌아온다고 말한다. 정치인들의 방문에 거주인들이 동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여가부는 나눔의 집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거주인들의 건강상태로 볼 때, 모두 사회복지시설법 상으로 나눔의집에서 머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병원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정의연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만나온 관련단체들에게 왜 공익제보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조용한 침묵은 무엇 때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관할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마쳤을 때, 두 가지 권고를 했다. 이사 5명의 해임명령과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 교체. 이것은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가 해야 할 책무다. 공익제보자들은 광주시가 권고를 받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 없이 질의했지만, 광주시는 답변을 미루고 미루다가 최근 주민들이 답변 청구에 나서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쳤으나, 시설폐쇄의 사유 혹은 시설장 교체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달랑 두 줄의 무성의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류광옥 변호사는 전했다. 그렇다면 민관합동조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민관합동조사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일까? 나눔의집을 통해 조계종이 축적한 자산이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 200억 가까이 된다고 한다. 시설을 폐쇄하면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간다. 광주시가 시설폐쇄 명령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가. 나눔의집 사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분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 압도적 다수일 때,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면서도 복잡한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말려들고 싶지 않은 이들이 압도적 다수일 때, 나눔의집의 거주인들의 '위안부' 피해 증언에 대해서는 비통해 하면서도 시설화된 삶을 강요받는 당사자들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일 때 나눔의집 사태는 가능한 일이 된다.

나눔의집, 지금-당장 폐쇄하라! - 무엇으로부터 탈(脫)할 것인가

후원자들이 모여서 후원금 반환소송을 하고 있고, 광주시 주민들이 연대체를 구성해서 마을 현수막 달기, 정기적 항의 방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류광옥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조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일이었다. 기업의 내부고발자 사건에서는 이러한 신청을 하고 나면, 공익신고보호법 조문 자체에 내부고발자를 내부고발 과정에서 고소·고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나눔의 집 사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고 한다. 공익제보자들과 소송대리인이 방송 인터뷰를 하고 나면 허위사실 유포 혹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잦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면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다시 신고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나눔의집 문제는 법과 제도적인 접근으로만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공익제보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시설의 문제이자 노동의 문제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설화된 삶과 강요된 증언의 문제이고 '위안부' 운동의 역사에 대한 비판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비판한다고 할 때, 이것이 '위안부' 피해에 관한 역사를 부정하는 힘으로 동원되거나 수렴되어 버리는 악순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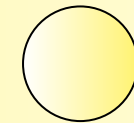
나눔의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폭로를 넘어서 이웃의 문제로 혹은 사회의 문제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공익제보자들이 전해준 말들의 기록은 나눔의집 문제를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나눔의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이 연대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 명백한 부당함 앞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나눔의집 폐쇄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유의미한 참조점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찾는다면 그것은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서 발신된 다음과 같은 메시지다.

“‘모든 수용시설 폐쇄’라는 목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탈시설을 해도 장애인을 배제하는 지역사회라는 또 다른 시설에 갇혀 지내지 않기 위해 탈시설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탈(脫)할 것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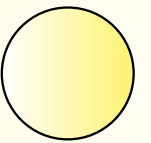
나눔의집을 지금-당장 폐쇄할 수 없다면, 그 불가능성 앞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으로부터 탈(脫)할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자. 시설과 시설화된 삶, 노동의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다층적인 쟁점들이 어떻게 연쇄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

9 조미경, 앞의 글, 2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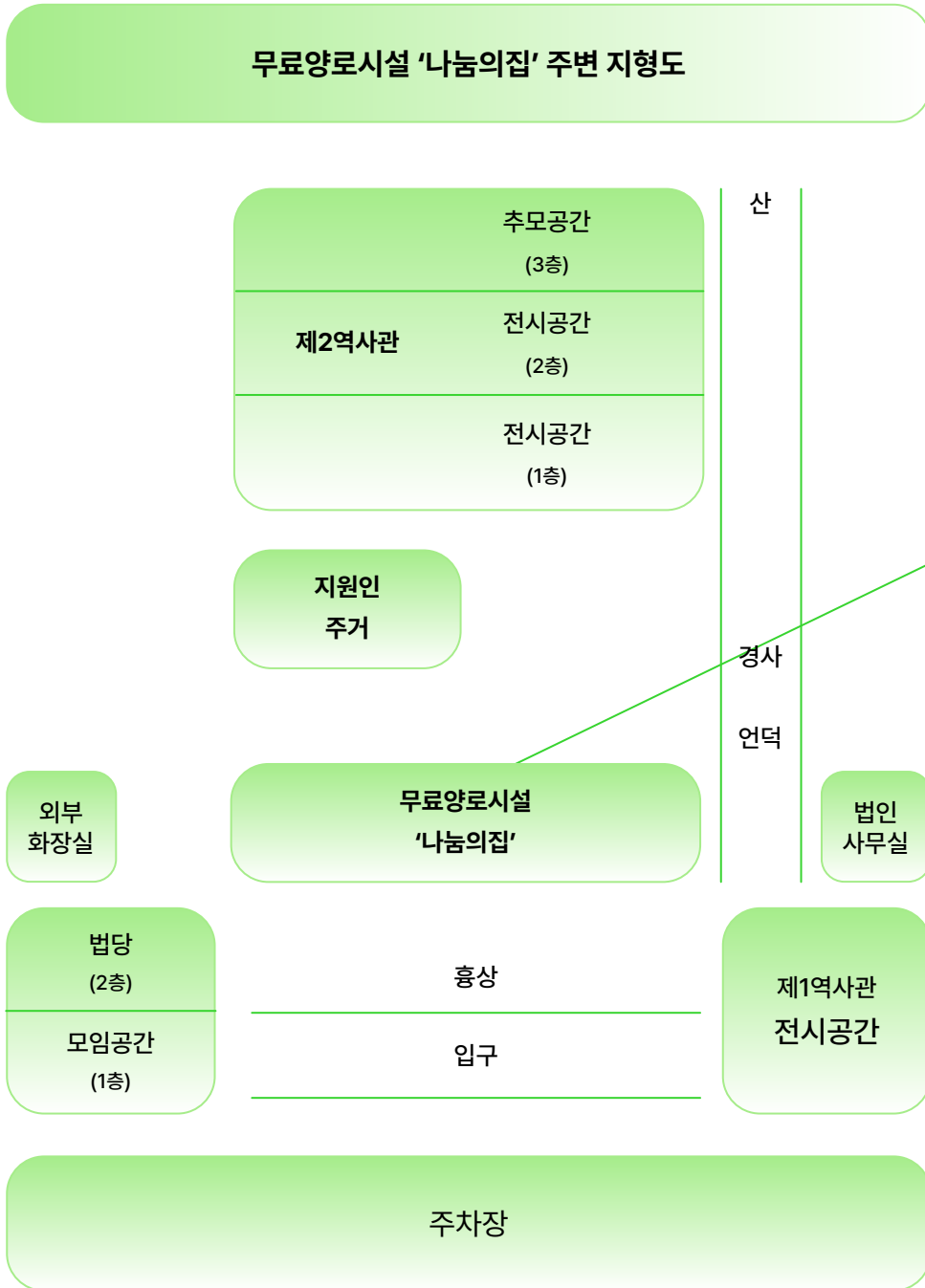


부록

나눔의집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산하
 무료양로시설 '나눔의집' 구성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산하 무료양로시설 ‘나눔의집’ 공익제보활동 관련사건 연혁

- 2019년** 3월_ 나눔의집에 대한 파행적 운영에 대해 직원들이 운영진에 공식 논의 제안
4월_ 생활관 2층 증축공사로 할머니 물건을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
7월_ 법인에 제안서 및 횡령의혹 해명 요구서 전달
- 2020년** 1월_ 역사관 직원 문자로 해고통지, 공익제보 직원 현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나눔의집 비리 사항에 대한 고발 및 개선안) 송달
2월_ 상임이사와 감사, 문제제기 직원 징계의견 감사보고 진행
3월_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 총리실, 여성가족부를 통해 공익제보 여성가족부 방문조사
4월_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광주시 지도점검 후 지적사항 20건, 과태료 350만원 부과
5월_ 경기도 감사실시, MBC PD수첩“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방영
기존 운영진 사직처리, 운영진 신규채용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조사, 광주경찰서 수사 시작
6월_ 광주시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 주·부식비 환수 통보
시설 종사자와 시설 출입 및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 제한
국민신문고 청원
7월_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시작, 나눔의집 이사 전원 직무정지
8월_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인정 및 보호조치 인용
(나눔의집 운영진이 국민권익위 인용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제기)
운영진 및 유족으로 구성된 나눔의집정상화추진위원회, 나눔의집 외벽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나?” 문구의 현수막 부착
당사자 야지마 츠카사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 중간발표

- 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 지난 5년간 약 88억8000원의 후원금을 모집. 그러나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음
나.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음.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
다. 할머니에 대한 학대 정황 발견
라.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 확인
마. 활동 역사를 담은 기록물을 방치한 점 확인
(법인 이사진의 전원 해임과 시설장 해임 등 처분을 경기도에 요구)

- 나눔의집 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 입장발표
9월_ MBC PD수첩 “스님께 다시 묻습니다.” 방영
10월_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가. 할머니 요청을 무시한 채 신상 공개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됨
나. 할머니의 집을 일방적으로 치우고 훼손함. 이에 할머니들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함.
다. 할머니에게 ‘버릇 나빠진다’라는 표현을 상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인정.

- 12월_ 경기도 나눔의 집 이사 11명 중 8명 해임, 경기도에서 임시이사 파견
(해임된 이사들은 행정법원에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
경기남부청 나눔의 집 조사결과 발표(*재판중)

- 가. 사기 5건(직원 허위등재(2건), 유서위조, 간병비 허위청구, 공사비 부정수령)
- 나. 지방재정법 2건(공사비 허위 청구, 입찰가장, 급여 부정수급)
- 다. 업무상횡령 1건(보조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후 돌려받아 횡령)
- 라. 기부금품법위반
- 마. 사문서위조(할머니들 중 한 분의 유서를 위조하여 법인으로 재산 편취)
- 바. 보조금법위반(공사비 부정수령)

2021년 2월_ 행정법원 1심 판결 전까지 이사 8명에 대한 해임 정지 판결
 5월_ 야지마 츠카사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기한 구제신청 인용

- 가. 나눔의집 법인 운영진 및 시설장 징계권고
- 나.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해산 및 추진위원 해촉권고
- 다. 전직원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행권고

8월_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직원 보호조치 인용 취소 청구소송 판결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 ‘공익신고자 보호’ 적법”
 10월_ 경기도 인권센터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사실 인정

- 가. 나눔의집 법인에 운영진 징계권고
- 나. 광주시에 시설장 교체 권고

▶ 광주시, ‘운영진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결과를 지켜보겠다.’
 12월_ MBC PD수첩 연말특집 나눔의집 관련 내용 방영

2022년 1월_ 해임된 이사 해임무효소송 패소(항소포기로 해임 확정)
 3월_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
 (임시이사 5인의 마지막 제안 모두 부결. 정이사 5인 추천 안건 상정되어 집단 퇴장)

- 가. 후원금 본래 목적 사용
- 나.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직원 보호
- 다. 조계종 승적 이사 2/3조항의 폐지 및 후원자 의견반영 구조로 개편
- 라. 역사관의 독립
- 마. 후원금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소송지원 법률기금 모금 시작
 나눔의집 임시이사 5인 사퇴 기자회견
 4월_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캠페인 시작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 경기도에 광주시 주민감사 청구
 나눔의집 공익제보 직원,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운영진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용어 설명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생존자. 우리나라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함. 또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우선 임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 등을 지원함.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매년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공익제보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신고, 진정, 제보, 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사람. 국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무료양로시설 ‘나눔의집’

나눔의집은 1992년 개원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1996년 경기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받고, 2000년 무료양로시설로 등록됨. 무료양로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소정원 10명이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사업은 보호 및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포함)임.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변경, 예산 및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과 관리, 임원의 임면, 수익사업 등을 모두 담당함. 이사회는 외부추천이사(정원의 1/3)로 구성되는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정관상 조계종 승적이 있는 이사가 2/3여야 함.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별개로 2002년 경기도에 비영리단체(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평화인권센터’가 등록되고 2010년 ‘국제평화인권센터’로 변경됨. 이후 2003년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전시 여성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와 역사관 전시, 홍보, 교육. 여성의 인권향상 및 인간의 권익향상 주요사업으로 하여 설립됨.

기록집 제작에 함께한 단체 및 사람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2003년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노동조합으로 출범하여 2007년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사회복지지부로 편제하였다. 시설 비리, 사유화에 맞서면서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워왔다. 복지현장에서 쉬이 묻히기 마련인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을 끌어내고 투쟁한다. 출범 20주년을 앞둔 현재, 더 너른 연대와 보다 강한 조직을 구상한다. 기록 작업에 동참한 박영민이 활동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수원에 위치한 인권단체로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구호 하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노동권 운동(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건강권, 노조탄압 대응 등), 반차별 운동(차별금지법제정운동, 지역인권조례 관련 대응활동), 공권력 남용 감시 및 대응(용산참사, 세월호참사 대응 등) 등의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인권,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역의 인권행정 및 정책대응 등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22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기록집 제작에 함께한 아사 활동가가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인권기록센터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역사와 현재 '사이'에서 세상은 만들어진다 믿는다. 차별받는 자, 저항하는 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잇는 인권기록활동을 지향하며 2019년 만들었다. 연구와 교육,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기록활동과 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 이번 기록 작업에 참여한 박희정, 이호연, 홍세미가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사회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운동 NGO로, 2005년부터 전국적인 시설조사에 참여하고 성람재단, 석암재단, 청암재단, 우석(인화원)등 대형화되고 사유화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및 비리척결 투쟁을 이어갔다. 2009년 구 석암재단 탈시설당사자 '마로니에 8인'과 함께 탈시설과 자립생활로 이어지는 정책을 만들어 간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탈시설당사자 지원모델 도입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기록 작업을 한 이정하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정

독립연구활동가. 동물·난민·여성·가해자성을 키워드로 공부와 활동을 이어가면서 대학 바깥에서 새로운 삶과 삶을 모색하는 중이다. 외국인보호소폐지운동과 동물해방운동을 통해 난민과 동물의 문제를 구급과 시설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주요 역서로 『유곽의 총파업』(논형, 근간), 『일본인 '위안부'-애국심과 인신매매』(논형, 2021) 등이 있고, 최근에 쓴 글로는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관리체제의 현재적 계보」(『황해문화』, 2022), 「페미니즘과 생태적 관점으로 다시-쓰는 '민'들의 법정의 계보」(『사이間SAI』, 2021), 「가해국 여성들의 피해, 일본인 '위안부'문제를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문학들』, 2021) 등이 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소송지원 법률기금 후원자 명단

S.Mikami, SHIN HYOJI, TAKANO SATOSHI, Yoon영경, 강경란, 강병준, 강숙, 강유가람, 강자영, 강현진, 개구리, 광선희, 구민서(나눔의집공익제보자), 구훈민, 권오복, 권은비, 김경태, 김보영, 김상규, 김순님, 김지운, 김지혜, 김진향, 김하나, 김형배, 김희정, 나영정, 노마드, 랑희, 류석진, 류소영, 림보, 문은옥,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노총, 송금희, 박래군, 박문철, 박선주, 박성식, 박소라, 박수진, 박승호, 박정숙, 박지영, 방소형, 백만호, 서의옥, 서정연, 나눔의집, 서현진, 성민경, 손성배, 손정미-응원합니다, 송기춘, 슬양, 신미혜, 신원영, 심재현, 안병훈, 안준호, 원지우, 원지우, 유재현, 윤보영, 윤운섭, 이경희, 이광욱, 이나영, 이도엽, 이동환, 이미경, 이미혜, 이상희, 이영남, 이윤수, 이월선, 이인경, 이정하, 이주호, 이진수, 이찬진, 이한빛,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재단사람, 장경옥, 장미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금순, 정명희, 정민석, 정에스터, 정우창, 정유리, 정지숙, 정현옥, 정현주, 조경희, 조미수, 조영선, 조윤익, 지은정, 채명수, 최상구, 최영숙, 최지호, 최태호, 한사랑감리교회

법률기금 모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기금 모금 기획과 홍보에 함께 해주신 인권재단 사람 정을 처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선택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인터뷰집

펴낸 날 2020년 7월 13일

펴낸 이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서포터즈

사진 김민환

편집 및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지극히 평범한 선택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인터뷰집

펴낸 날 2020년 7월 13일

펴낸 이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서포터즈

사진 김민환

편집 및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